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September 2013 vol.102

9

이달의 이슈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개발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
정은하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
윤민석

생생리포트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김희영

인포그래픽스

서울 사회적기업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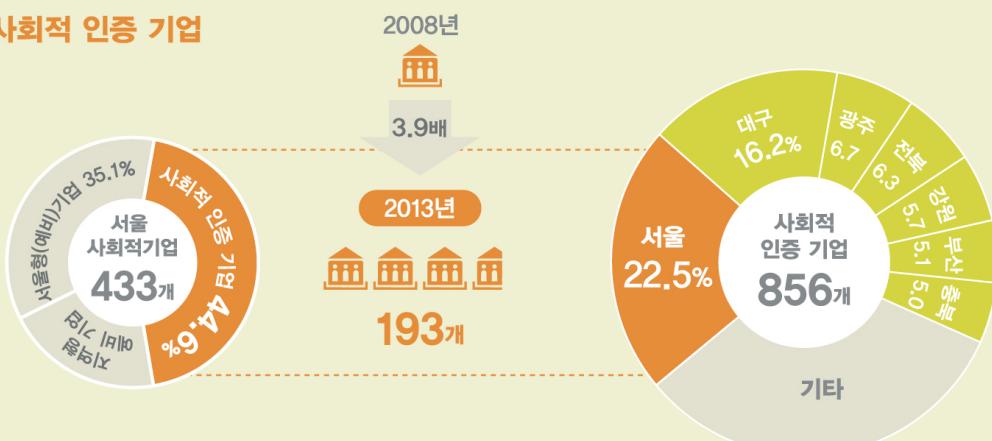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서울의 사회적기업 433개 중 인증 기업은 193개
사회적 인증 기업은 전국의 22.5%로 최근 5년간 3.9배 증가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환경'으로 105.8억원**

서울 사회적 인증 기업



서울 사회적 인증 기업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서울경제

2013 vol.102

9

- 이달의 이슈** 3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개발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11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원)

- 생생리포트** 25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김희영(서울문화재단 매니저)

- 인포그래픽스** 37 서울 사회적기업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경제동향** 43 요 약
45 생 산
47 소 비
48 고 용
51 물 가
52 부동산
54 금 융
62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 부록** 67 통계표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개발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연구위원
93eunha@welfare.seoul.kr

1.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정책 배경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갖추고 새로운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어르신 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변화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적 방향성은 물론 세부적인 서비스 변화의 방안을 부단히 모색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노인인구의 변화 상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통계연보(서울특별시, 2012)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11년 현재 10,528,774명이며, 이 중 55세 이상 인구¹⁾는 2,676,715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25.4%를, 65세 이상 인구는 1,049,425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률 면에서는 55세 이상 인구의 38.8%(883,000명)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
-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연구(2013), 노인능력 활용방안 연구(2012),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2011), 고령자 취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2007),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2007)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은 65세이나, 노인 취업 정책에서는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는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은 22.4%(235,000명)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업률 현황에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34.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조사로서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55.5%)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한 도시지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3.8% 수준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이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통해서 해당 인구의 욕구를 파악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구로서, 취업 욕구를 가진 노인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노인인구가 근로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취업률은 낮다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2012년 서울시복지재단(정은하, 2012)에서는 55세 이상 서울시 거주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황과 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중 62.2%가 향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48.2%가 취업 의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연령증가에 따라 근로의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2011년 전국 단위 65세 이상 노인 대상 조사에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에 대한 질문에 38.5%이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결과와 비교하여봤을 때, 서울지역 노인의 일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위와 같이 단순히 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넘어서, 노인들이 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 정책적 방향성을 가름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생각하는 일에는 다양한 의미가 혼합되어 있음을 최근 연구(정은하, 201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생계유지와 관련된 문항의 평균점수(4.0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즐거움의 추구(3.89점)이나 사회에의 기여와 인정(3.45점)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울시의 어르신 일자리 정책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욕구충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특성 및 관점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방향성 또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생계유지 목적의 일자리의 중요성 또한 두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즐거움을 얻거나 사회적인 기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일자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정책 현황

서울시에서는 노인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취업알선센터와 노인취업훈련센터는 100% 서울시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서울시의 고유한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며,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운영을 통해서 그 동안 노인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업적과 경험을 쌓아올 수 있었다. 또한 2003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실버취업박람회(2012년 서울시니어 일자리엑스포)와 고령자기업 창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은 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이 적합한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외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확보와 제공 측면에서, 시니어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은 은퇴한 전문가집단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측면에서, 노인 사회활동의 경로를 폭넓게 확보하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다양성은 노인 집단의 특성 및 욕구가 획일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노인 대상 일자리 제공 방안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는 2012년 현재 약 34,615개 수준이다.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2018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 65%가 공공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약 10만개까지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주도의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업 참여기간 연장(7개월→9개월) 등의 중앙정부 정책적 변화와 맞물려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액 시비 일자리사업(약 1천개)은 임금, 참여자격, 근로시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해보고자 한다.

한편, 민간 영역 일자리와 관련해서, 2012년 말 첫 기관이 개소된 서울인생이모작지원 센터가 2017년까지 자치구별로 설치되면 보다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의 기능은 기존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기능을 계승 및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각 구별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던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권역별로 재배치하여 민간영역 일자리 발굴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 이행 중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에 따른 변화와 성과 또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달의 이슈

[표 1] 서울시 노인취업 관련 주요 사업(1)

구분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 훈련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대상	만 5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 55세 이상
사업 내용	취업상담 · 알선 구인처 개발 구인 · 구직사후관리	직종별 훈련과정 맞춤형 취업훈련 창업강좌	노인소득지원 및 사회활동기회 확대 사회공헌형/자립지원형	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범위	25개 센터 사업비 (인건비 · 운영비) 2013년 개편진행중	1개소 사업비 (인건비 · 운영비)	노인 인건비(월 20만원) 부대비용(1인당 연 11~13만원)	4개 기관 46개 사업단 사업비
분담 비율	시비100%	시비100%	국비30%, 시비35%, 구비35%	시비100%

[표 2] 서울시 노인취업 관련 주요 사업(2)

구분	고령자기업 창업 육성·지원	서울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2012서울시니어 일자리엑스포	서울인생 이모작지원센터
대상	종사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80% 고용기관	현업 은퇴전문가 전문 자원봉사단	고령인력 구인업체 및 고령구직자	베이비부머 및 신노년층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지원현황 2008년 5개소 2009년 5개소 2010년 5개소 2011년 5개소 · 지원내역: 시비100% 2억8천만원 기관당 1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구성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9.25~26 · 124개 업체 참가 · 주요 구인 직종 : 무료급식도우미, 치매우울노노케어, 영화관도움지기 등 3,000여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 : 2012.12 · 신노년층 특성과 제2 인생설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취업 · 창업 · 사회 봉사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

3.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개발과 그 의미

위와 같이 어르신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르신 인력이 투입되기에 적당한 일자리를 확충하지 않고서는 취업의 확대와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어르신 적합직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연구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었다. 직종 개발에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사회상과 다양화된 노인의 특성 및 욕구가 반영되도록 하였고, 연구 결과는 사회 인식 개선 뿐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종 개발 연구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르신 대상 추천 가능 직종의 목록(190개 직종)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목록은 다시 한 번 일정한 선정 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리(76개 직종)되었다. 최종 직종 선정에 활용된 기준은 다음 <표 3>의 내용과 같이, 수행적합성, 진입가능성, 공급안정성 등인데, 선정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청년 일자리 영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표 3] 서울시 고령자 직종 선정 기준

기준	세부 내용
수행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활동의 범위와 강도가 크지 않은 활동성이 낮은 직종 ·근로시간 유연성(파트타임 활동 가능성 등)이 높은 직종 ·고령자가 수행하였을 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직종
진입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단기간의 훈련·교육·준비과정을 통해 진입이 가능한 직종 ·특정 경력을 요구하는 관리직, 전문직, 숙련기술직 등 제외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창업을 통해 진입가능한 직종 제외
공급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고령자 고용 가능성이 입증된 직종 ·관련 분야의 일자리 정책 수립이나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종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어, 고용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한 직종 ·프리랜서 활동 등과 같이 일자리 공급처가 불분명한 경우 제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자리 경쟁 직종 및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종 지양 ·기존 직업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직종 지양(의료영역 등) ·국내 문화와 정서상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직종 지양

* 참고 : 정은하, 2013

직종 개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76개 직종을 살펴보면 많은 직종이 사회적 기여와 공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고령자 집단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사회공헌형 직종에 적합하다는 근거와 논리는 빈약하지만, 은퇴 후 재진입이 가능한 직종을 주요 개발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계 목적을 넘어서 생의 보람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최근 노인들이 가진 일의 목적 경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제안 내용 중 완벽히 새로운 직종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신생 직종에는 어르신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령자 직종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개발 직종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직종에 대한 고령자 수행적합성, 진입가능성, 공급안정성이 이미 입증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 직종에 대한 지속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직종별로는 고령자 진출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상이한데, 주차관리원, 교통도우미, 학교보안관, 등하교안심 도우미 등과 같이 서울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것이 있고, 다문화교사, 고령자상담가, 도슨트, 향토보안관, 설문조사원, 패스트푸드원, 영화관도움지기 등과 같이民間의 노력을 통해 개발 및 활성화된 것이다.

반면에 개발 직종에는 현재 종사자가 거의 없는 개념조차 생소한 직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노인운동치료전문가, 요양서비스코디네이터, 개인여가컨설턴트, 웨딩관리사, 공연해설사,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복지모니터원, 반려동물학대감시원, 반려동물장의사 등이 바로 그러한 직종인데, 서울시에서는 이들 직종을 고령자 직종으로서 향후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서울시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고령자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종 개발 이외에도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및 실무자를 위한 지원책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개발된 직종을 기초로 하여 일자리 안내 가이드북을 연내에 출간할 예정이다.

[표 4]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유형	직 종	유형	직 종	유형	직 종
음식 서비스	1. 식음료전문가	교육 강사	25. 놀이강사	마을 환경	53. 마을활동가
	2. 조리사		26. 공예강사		54. 경로당코디네이터
	3. 식품생산원		27. 독서지도사		55. 향토보안관
	4. 주방보조원		28. 동화구연사		56. 보도파수꾼
판매 서비스	5. 패스트푸드원		29. 보조교사		57. 지역내응급치료사
	6. 영화관도움지기		30. 다문화가정방문교사		58. 도시농업전문가
	7. 판매원		31. 웃음치료사		59. 농촌서포터즈
	8. 텔레마케터		32. 노인운동치료전문가		60. 유기농기능사
운수 교통	9. 주유원	복지 상담	33. 요양서비스코디네이터	녹색 환경	61. 식물관리사
	10. 세차원		34. 직업상담사		62. 생태해설가
	11. 배달원		35. 고령자상담가		63. 환경감시원
	12. 운전원		36. 개인여가컨설턴트		64. 에너지지킴이
	13. 주차관리원		37. 월다잉관리사		65. 재활용분류원
	14. 교통도우미		38. 연기자		66. 준사서
경조 서비스	15. 통행료징수원	예술 문화	39. 플로리스트		67. 시험감독관
	16. 주례사		40. 공연해설사		68. 설문조사원
	17. 혼례종사원		41. 문화재해설가		69. 복지모니터원
	18. 장례·상조도우미		42. 도슨트		70. 통·번역가
돌봄 제공	19. 돌봄도우미	여행 관광	43. 여행안내사	기타	71. 경영지도사
	20. 생활지도원		44. 호텔종사원		72. 목공보조원
	21. 요양보호사		45. 도시민박운영자		73. 봉제사
	22. 급식도우미		46. 주택관리사		74. 포장원
	23. 학교보안관	주거 환경	47. 공인중개사		75. 반려동물학대감시원
	24. 등하교안심도우미		48. 시설관리경비직		76. 반려동물장의사
			49. 층간소음관리사		
			50.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51. 환경미화원		
			52. 방역원		

이와 같은 일련의 어르신 직종 개발 과정을 진행해나가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어디에도 고령자라서 할 수 있거나 고령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세대와 같이 고령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만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 충돌을 겪지 않고 고령자가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내는 일보다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76개의 직종이 대량의 고령자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기 보다는, 고령자 일자리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한다. 즉, 특정 직종 내에서 고령자가 다른 고용자와 비교하여 어떻게 우위를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직종이 고령자 일자리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결국, 고령자 취업 활성화는 직종 개발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에는 개별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수립 등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복지건강실.
- 서울특별시, 2012, 서울통계연보.
- 정은하, 2012, 노인능력 활용방안 연구: 취업지원서비스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 정은하, 2013,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적합직종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노인실태조사.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msyoon@si.re.kr

얼마 전부터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고령화가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 측면이 있다. 본문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정의 및 문제점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화란?

고령화에 대한 정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65세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률은 없다. 기초노령연금 법이나, 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는 대상자를 65세 이상이라고만 정의할 뿐, 이들이 노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노인의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1)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및 박사
- 현)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경로당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2012), 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서비스욕구와 정책과제 (2013)

유엔에서는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7%미만일 경우 청년사회, 7%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규정하고 있으며, 14%미만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1%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인구 변화의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으로써,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그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짚은 충의 도시이주 현상이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2.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예전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환갑잔치를 열고 축하해주었지만, 요즘은 70세에 칠순잔치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수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현재 노인이 몇 세까지 생존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 설정이다. 평균 수명 추계를 살펴보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평균 6년을 더 생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평균수명

구분	(단위: 세)														
	'71	'81	'91	'01	2003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남 자	59.0	62.3	67.7	72.8	73.89	74.84	76.17	77.23	78.22	78.58	79.18	79.59	80.02	80.33	80.67
여 자	66.1	70.5	75.9	80.0	80.80	81.52	82.60	83.59	84.41	84.86	85.22	85.60	85.95	86.27	86.59

출처: 통계청, 장애인구특별추계, 2005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2012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치인 2.1명보다 낮은 1.23명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통계청.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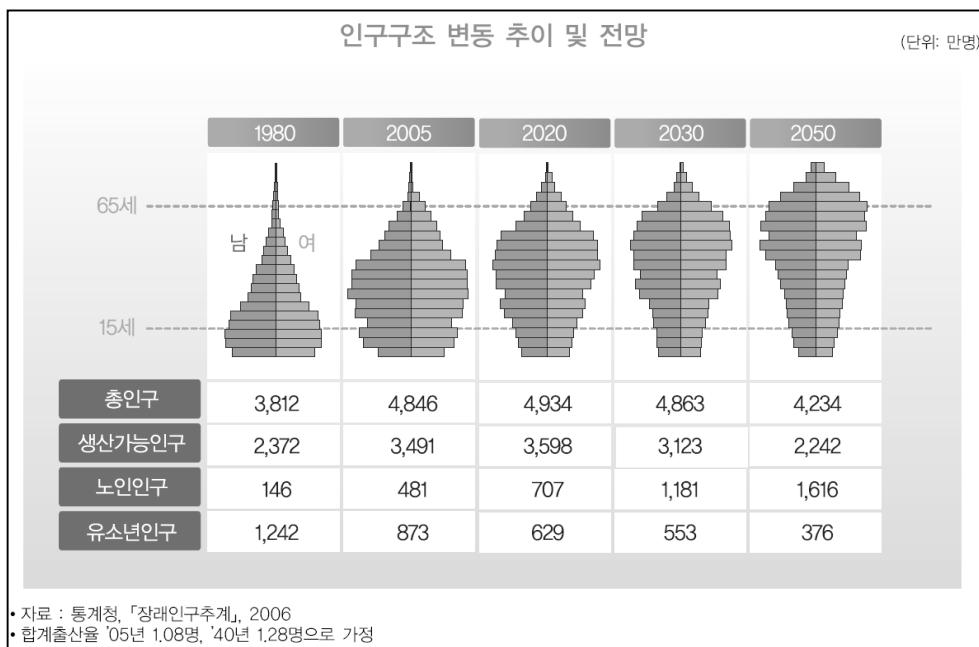
[표 2]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1970	1990	2000	2012	2020	2030	2040	2050	(단위 : %)
총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42.5	25.6	21.1	15.1	13.2	12.6	11.2	9.9	
15~64	54.4	69.3	71.7	73.1	71.1	63.1	56.5	52.7	
65세이상	3.1	5.1	7.2	11.8	15.7	24.3	32.3	37.4	
65~74세	2.3	3.5	4.9	7.1	9.0	14.6	15.8	15.3	
75~84세 (75세이상)	(0.8)	(1.6)	2.0	3.8	5.1	7.2	12.4	14.4	
85세 이상	-	-	0.4	0.9	1.6	2.5	4.1	7.7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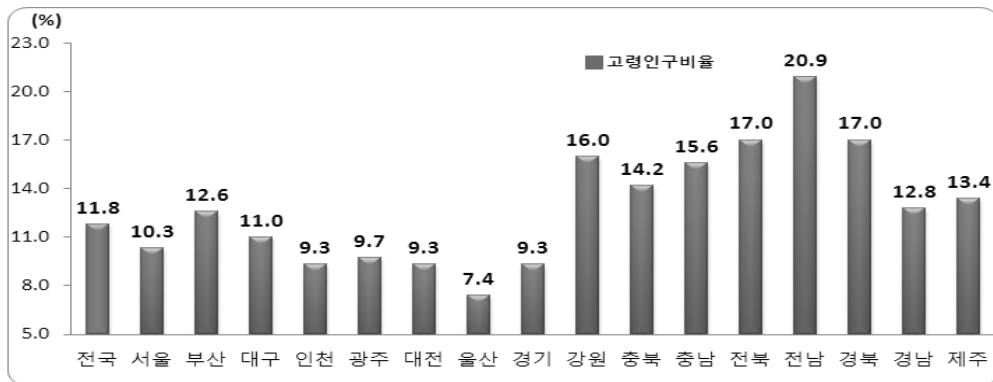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단위: 만명)



[그림 1]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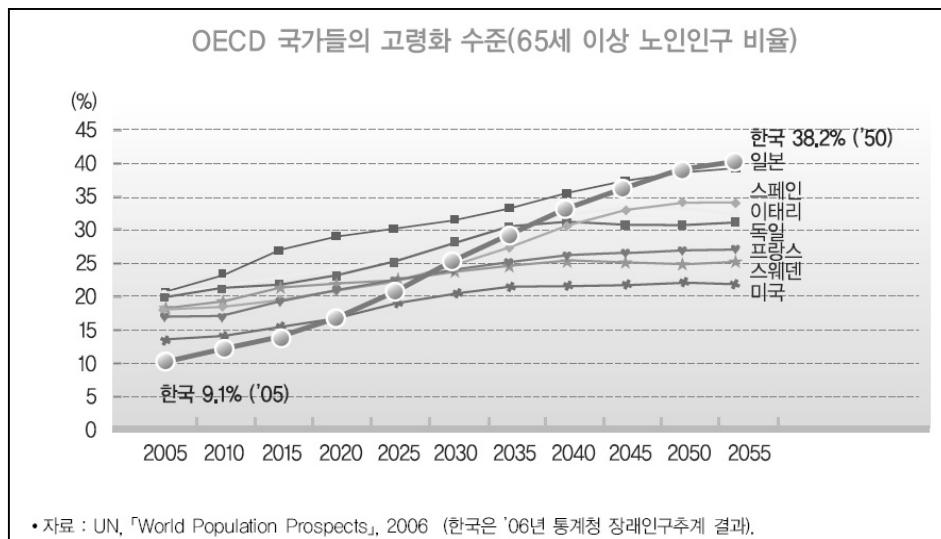
이러한 인구추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종모양이 아닌 역삼각형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인구구조는 노인인구가 적고 생산기능 인구 및 유소년 인구가 많아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역삼각형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생산 활동이 어려운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인구구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통계청, 2012)

또한 2012년 시도별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들의 고령인구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이 고령화문제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보다는 고령화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으며, 인구 추계상으로 볼 때,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보건복지부, 2012)

3. 고령화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제도 변경의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데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선진국들의 고령화 단계별 소요기간을 볼 수 있는데,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까지 증가하는데 소요기간의 평균이 약 71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14%에서 20%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6.4년인데, 우리나라는 8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진전현황 비교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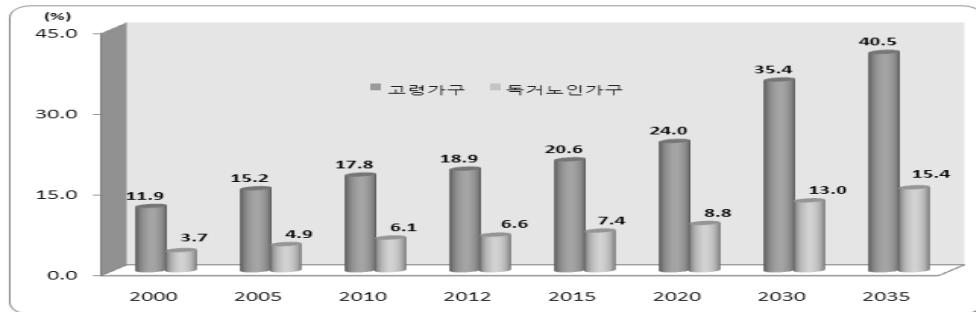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러한 소요기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요기간이 길수록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를 위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논의기간이 길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초고령 사회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상의 지급률과 지급연령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데 10년이 걸린 사례도 있는 것을 볼 때, 고령화 관련 법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 증가로 인한 소외 및 역할 상실의 문제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노인 단독증가로 인한 문제들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1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는 2012년 현재 총 가구 구성비의 6.6%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2035년에는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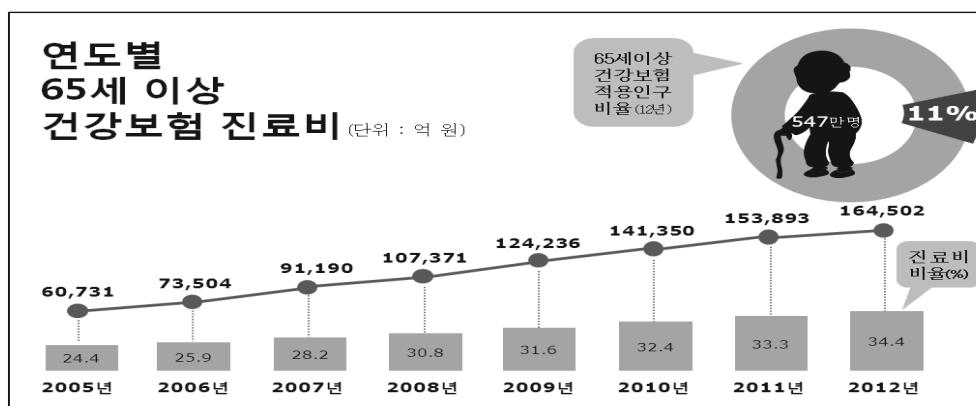


[그림 4] 노인가구 현황 및 독거노인가구 현황(보건복지부,2012)

이와 함께 노인들의 소외감 및 역할 상실에 따른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역할 없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소외를 겪을 경우 노인우울이나 자살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독거노인이 가족 없이 죽는 고독사 문제도 예상된다.

노인의 건강악화에 따른 요양 및 수발문제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온다고 평가하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와 노인들의 요양 및 수발에 따른 사회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노인의료비 대상자 및 지출 현황(건강보험관리공단,2013)

위의 [그림 5]에서 볼 때 2012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이상의 비중은 34.4%로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성 질환에 따른 장기요양 및 수발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요양등급 인정비율이 낮은 문제와 요양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및 자기부담금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제도의 정착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경제적인 문제점

부양비 증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뎅달아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을 노인부양비라고 하는데, 201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1로서 생산가능인구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표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1990	2000	2012	2017	2030	2040	2050
노년부양비 ¹⁾	7.4	10.1	16.1	19.2	38.6	57.2	71.0
노령화지수 ²⁾	20.0	34.3	77.9	104.1	193.0	288.6	376.1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³⁾	13.5	9.9	6.2	5.2	2.6	1.7	1.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사회보장비용의 지출 증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비용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표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인 2005년의 경우 수급자가 70여만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18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단위 : 명, %)

	합 계	노령연금 ¹⁾ (퇴직연금)	장애인금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 ²⁾
2005	703,508(100.0)	635,190(90.3)	3,911(0.6)	64,407(9.2)	16.1
2010	1,606,024(100.0)	1,420,822(88.5)	9,607(0.6)	175,595(10.9)	29.5
국 민 연 금	1,428,414(88.9)	1,265,781	8,847	153,786	26.2
공 무 원 연 금	155,777(9.7)	135,117	741	19,919	2.9
사 학 연 금	21,833(1.4)	19,924	19	1,890	0.4
2011	1,800,167(100.0)	1,585,755(88.1)	10,775(0.6)	203,637(11.3)	31.8
국 민 연 금	1,605,959(89.2)	1,417,187	9,899	178,873	28.4
공 무 원 연 금	169,979(9.4)	146,551	856	22,572	3.0
사 학 연 금	24,229(1.3)	22,017	20	2,192	0.4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부(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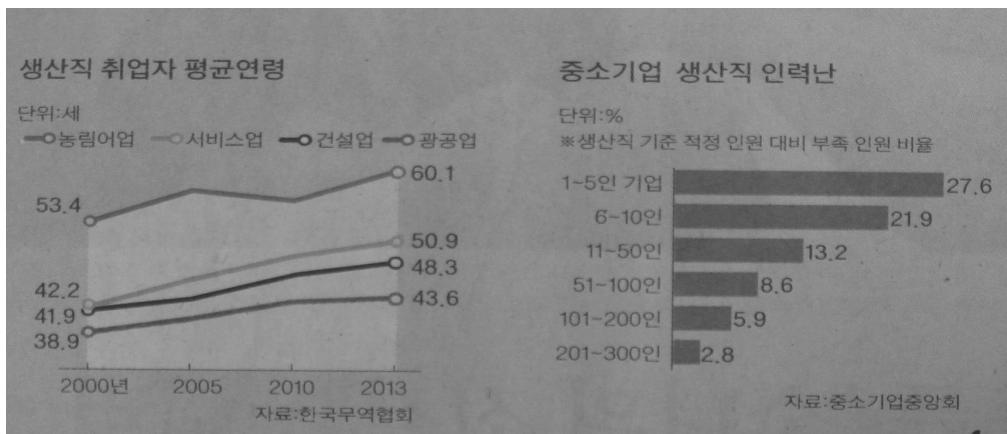
주 : 1) 연금수급자 중 일시 수급정지자를 제외한 실수령자 기준임

2) (각 연금 수급자 / 65세이상 추계인구) × 100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연금을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보다 연금을 받아야하는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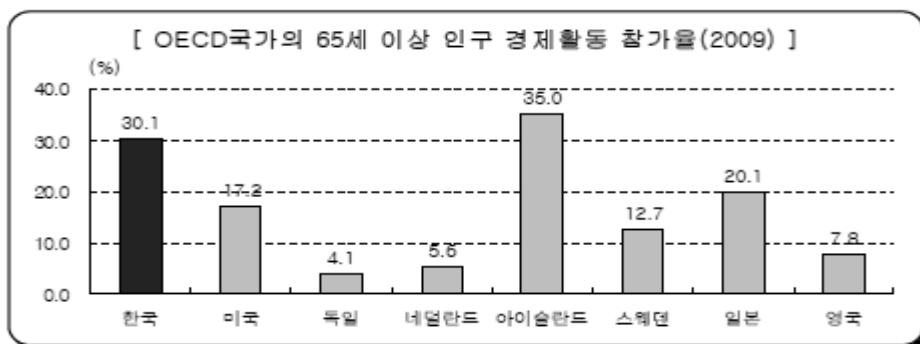
고령인구의 증가는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통계자료들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작성한 생산직 취업자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종사는 2000년도에 평균연령이 53.4세에서 2013년에는 60.1세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건설업, 광공업 등 모든 업종 생산직 평균연령이 40대 초반이었던 2000년대에 비해 올해는 평균 47세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소업체의 인력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9.6%, 업체당 2.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부족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생산직 취업자 평균연령 및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중앙일보.9월 9일자 경제면기사)

노인의 빈곤으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고령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은퇴이후에 퇴직금 및 연금생활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면서 내수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OECD국가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 본 것인데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4%가 나온 것을 볼 때, 현재의 노인들이 연금액수가 부족하고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2009년 OECD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통계청,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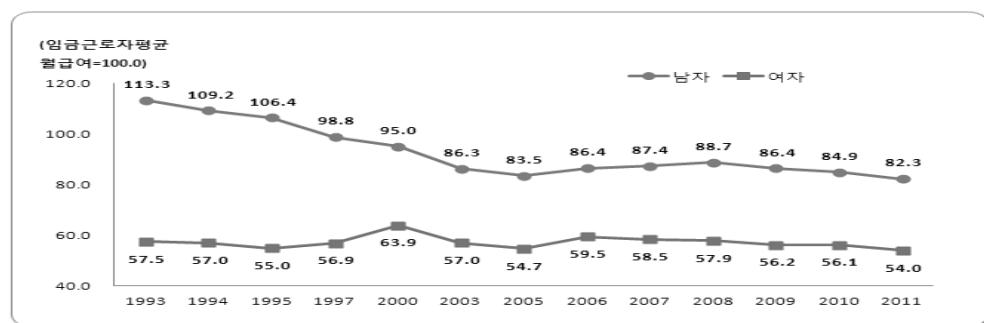
[표 6]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단위 : %)

	계	장래근로 원함	장래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12.5	100.0	59.0	100.0	36.5	54.4	2.0	2.1	4.8	0.2
남자	100.0	72.5	100.0	40.3	50.5	2.7	2.2	4.1	0.1
여자	100.0	47.2	100.0	31.4	59.6	1.0	2.0	5.7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2012.

이외에도 노인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경우 노인 임금근로자 평균 급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2011년을 기준으로 남자 노인의 경우 월평균 82.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54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65세 이상 인구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여 추이(통계청, 2012)

4. 생각해 볼 문제들

지금까지 고령화의 정의 및 관련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문제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노인 기준연령의 재조정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에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나와있지 않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5세인 것을 볼 때, 사회적으로는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연령이 67.8세로 나타난 것을 보면 65세를 신체적 외모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기준연령을 높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조금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년연장 문제이다. 현재 기업의 정년 연령은 50대 초반인 경우가 많으면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한채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대이면서 사회적으로 역할이 없어서 소외되거나 우울해지는 노인들을 볼 수 있는데, 50대에 은퇴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60세까지 일정 기간동안 아무 소득도 없이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노년을 보낼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들이 은퇴함으로서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가 된 일본의 경우도 숙련된 제조업 근로자들이 조기에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것을 롤모델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등을 통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면서 시간제 근로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서 노인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궁정적인 측면으로 이민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추계들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수 및 출산율로만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이민자들이 포함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통계청 인구통계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로 인해 고령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볼 때, 해외이민자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활발히 받아들임으로서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물러나는 존재가 아닌 연륜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도 자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의무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이라고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으려하기 보다는 가장 연장자로서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고령화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인 것 같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민족스러운 정책이 나타나기는 어렵고, 인구정책의 특성상 오랫동안 운영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최성재, 장인협 (2010),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통계청(2012). 고령자통계.
- 통계청(2012).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2). 장비인구추계.
- 중앙일보. 2013년 9월 9일 경제면 기사

생생리포트

SEOUL ECONOMIC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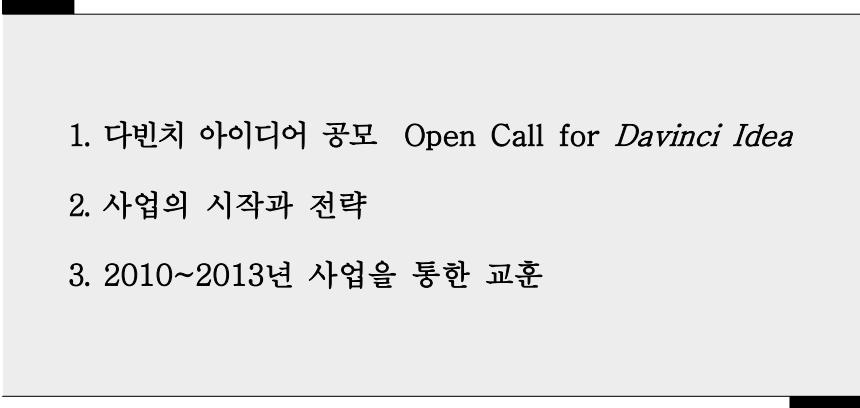
생생리포트

■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김희영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¹⁾

김희영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매니저
mintwaxed@sfac.or.kr

- 
1.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Open Call for *Davinci Idea*
 2. 사업의 시작과 전략
 3. 2010~2013년 사업을 통한 교훈

1) 이 글은 2011년 10월 27일 개최된 3회 금천예술공장 국제심포지엄 <예술의 실험 : 예술가, 기업 그리고 산업단지>에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Open Call for *Davinci Idea*

<다빈치아이디어 공모>는 기술과 예술, 기능과 미학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0부터 추진하여 올해로 4회에 이른다. 이 사업은 금천예술공장이 자리 잡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산업도시’라는 지역적 정체성 아래에서 출발하여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처럼 창의적 아이디어의 예술가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명명되었다. 공모를 통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기술기반 창작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개발제작비와 전시, 기술 자문, 전(前)사업화 단계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독특한 사업이다.

기술을 통한 미학적 성취를 목표로 한 대개의 미디어아트 전시와 달리 <다빈치아이디어 공모>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작품들과 그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들을 통해 기술이 예술의 형식과 본질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시키고, 역으로 기술 분야에 ‘예술’이 영감을 주고 기여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술과 기술이라는 두 이질적인 분야의 경계와 혼재 속에서의 진행되는 융합 실험은 미학을 추구하는 예술가, 기능과 수익을 추구하는 엔지니어와 산업체, 이를 매개하는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업을 전제한다.

2. 사업의 시작과 전략

이 전시의 추진체인 금천예술공장은 1970년대 전화기 코일 공장에서 1990년대 인쇄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시작예술분야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로 전환한 것이다. 이 사업은 금천예술공장과 인접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첨단산업단지’로서 지역정체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70년대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섬유·봉제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로산업단지는 1996년 구로공단첨단화계획이 수립되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2000.12 월)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벤처기업, 패션디자인산업, 기계 정밀기기 및 첨단제조업 산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 하며 이러한 특화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문화·예술 분야 지원기능을 구상하게 된다.²⁾

예술을 통한 사업모델 창출, 산업단지와 협업을 통한 창작은 작업공간과 제작비 지원이 중심인 기존 레지던시 스튜디오와 차별화하려는 금천예술공장의 다소 도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의 설계기초는 미디어아트 창작지원프로그램 중 근래 가장 공격적으로 펼쳐졌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08 문화콘텐츠제작센터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제작」 사업³⁾의 선진성을 금천예술공장의 사업범위 안에서 수용한 것이다.

사업의 큰 축은 공모, 개발, 전문가 워크숍, 발표회(전시), 프로모션 미팅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본 사업이 다른 미디어아트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핵심은 공개공모에 의한 산업화 전제의 아이디어 선발이라는 점,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 개발작품 발표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세부전략을 기술하면,

1. 인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체들과 창작자의 프로모션 미팅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사업화 가능 아이디어에 대한 기업의 기술력 및 재료 등의 후원(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 산업체)을 권장한다.
3. 선정된 창작자 10팀 중 1팀에게 금천예술공장에 기획입주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모 선정자에 대한 창작지원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4. 창작품의 전시를 남부교육청 및 금천구청과 협력을 통해 서남부권 학생들의 관심 유도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 홍진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추진방안」, 산업연구원, 2008 참조.

3)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09.

「2008 문화콘텐츠제작센터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시범제작」 사업은 창작비와 전시로 지원이 국한된 대체적인 미디어아트 지원 사업에서 한발 나아가 창작자(집단)와 제작기술자(집단)의 동시참여를 시도하였으며, 창작품의 ‘사업화’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또한 미학적 상위성이나 첨단기술 기반 아이디어 뿐 아니라 사람들의 통념을 환기시키는 제안도 선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본 사업은 이 두 가지 장점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다만 기술자그룹의 공동참여는 금천예술공장의 사업 범위를 넘어섬으로 전문가 기술자문으로 대신하였다.

[표1] 2010~2013 다빈치 아이디어 사업 세부 구성

구분	내 용	일정
공모	○ 공개공모에 의한 개발기획안 접수 ○ 창작아이디어 선발 심사(1차:서류/2차:면접)	04월~05월
개발	○ 창작지원 공모 선정작 10점	06월~8월
전문가워크숍	○ 개발자 대상 기술, 산업, 미술분야 전문가의 자문	2회
발표·프로모션미팅	○ 개발작품 발표회 및 관련 산업체 관계자와 프로모션 미팅	09월

[표2] 다빈치아이디어 공모 개요

구분	내 용
모집부문	○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공개 모집
개발아이디어	○ 고기능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며 재미있는 아이디어 ○ 일상의 평범한 기술, 디자인 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제안 ○ 디지털미디어, 무선네트워크, 로봇, 기계/조형 영역 등 또는 다분야 기술 융합 창작품 ※ 공연예술, 조형예술, 문학 등 전통장르 제외 ○ 본사업의 예산지원 및 지원자의 실행능력으로 구현가능한 아이디어
모집인원	총 10인(팀)
지원내용	○ 제작비(재료비 등) 지원(500~1000만원)

3. 2010~2013년 사업을 통한 교훈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기본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의 아이디어 모두를 수용하는 ‘지원의 개방성’ 위에서 출발하였으나 기술적 구현능력 부족으로 제안에 못미치는 결과물이 나오거나 기간 내 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업 원년에 겪으면서 결국 공모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술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이후 사업방향의 교훈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아이디어를 구현할 기술력을 담보한 제작자를 선발하는데 주력하면서 전문가 및 전공자 집단의 선정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반인의 창작아이디어를 지원하려는 사업 원년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이디어 부문과 제작공모 부문을 분리 선발하고, 전자의 경우 우수 아이디어 수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

둘째,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를 강조하면서 여타 미디어아트 전시가 갖는 심미

성을 다소 포기해야 하는 결과도 겪게 된다. 이 문제는 2011년 이후 다빈치 아이디어 사업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지원자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개선되어가고 있다.

세째, 사업주체 업무영역의 문제이다. 테크놀로지 기반창작지원 프로그램'의 도전성과 혁신성은, 전시/홍보 지원 중심의 보편적인 미디어아트 지원시스템과 다르게 아이디어 선별에서부터 '사업화 지원' 단계까지 나아간 데 있다.

2010년 창작품의 2011년 상품화 개발 과정⁴⁾을 통해 금천예술공장은 '예술작품의 상품화'라는 몹시 막연한 목표에 대해 어디까지가 사업주체의 역할인가를 고민하였다. ①아이디어를 선정하고, ②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며, ③개발된 프로토타입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④이후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한 2차 개발까지 지원하여 ⑤전시와 프로모션 미팅을 통해 작품을 기업에 노출시켜 양산의 의지를 지닌 사업자를 만날 통로를 확보해주는 단계까지가 금천예술공장의 역할영역으로 파악되었다. 상품화의 의지 그리고 양산 및 유통은 이후 창작자와 기업, 유통업체의 뜻인 것이다.

해외에서조차 아직 시작단계인 '예술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서울시창작 공간을 통해 시도한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상기한 사업주체의 역할 영역을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이 사업이 지속되고 판매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작품이 금천예술공장의 지원 아래 창작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양산, 유통, 판매'해줄 파트너는 한동안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체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금천예술공장 또는 서울시가 그러한 역할을 직접 해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가지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금천예술공장의 역할 영역 안에서 이 사업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다. 개발자 혹은 예술가들은 개발비와 전문가 지원 외에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산업체와 기술협업, 협찬을 확장해가고 있으며, 국제적 지명도의 전시와 저널을 통해 재

4) 금천예술공장의 '예술작품의 사업화' 시도를 통해 2010년 개발작 10개 중 2011년 1개 작품이 시범선정되었다. 금천예술공장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상품화 개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1차 후보작 3점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및 상품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컨설팅 범위는 기술, 디자인, 경제성의 세 범주에 대한 사업성이었으며 검토 결과 사업화 후보 3개 개발작 중 김동조의 <기억의 캡슐 Record of the Capsul>이 최종 상품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0년의 결과에서 개선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다시 제작되었다. 2011년 11월 3일 2회 다빈치 아이디어 전시 "임의접속이 가능한 블랙박스"전에서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조명되고 있다. 2012년 선정된 한윤정+한병준의 <손끝소리>는 2013시그라프(SIGRAPH)에 초청되고 『레오나르도(Leonardo)』(2013년 8월호)의 표지를 장식하였으며, 하이브(HYBE)의 <아이리스>는 미디어아트 정보와 작품이 집성되는 3대 주요 사이트⁵⁾에 소개되며 유튜브 조회수 2만7천회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올해로 4회째 접어드는 <다빈치아이디어 공모>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창작지원사업에서 2014년엔 국제적 규모의 페스티벌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능과 미학이 마주치는 긴장과 혼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시대 속의 삶 속에서 ‘예술’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테크놀로지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가를 현재 전시 중인 <블루아워 : 기능과 미학의 경계>⁶⁾전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표3] 2010~2013 다빈치아이디어 발표회

구분	전시
2010	테크네의 귀환(12.9.~12.22)
2011	임의적 접근이 가능한 블랙 박스(11.3.~11.22)
2012	내일의 전야 : 산업 그리고 미디어아트(9.10~10.9.)
2013	블루아워 : 기능과 미학의 경계(2013.9.11.~10.15)

[도판1] 금천예술공장 전경

[도판2] 전파상, <개구리 실로폰> :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도판3] 하이브, <아이리스> : 2012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도판4] 과학+예술의 국제적 저널 ‘레오나르도’ 2013년 8월 표지를 장식한 한윤정+한병준, <손끝소리> : 2012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도판5] 앤엑스유엑스, <스마트버그> : 2013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5) 크리에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Creation Application Network), 더 크리에이터스 프로젝트(The Creators Project), 홀로매거진(Holo Magazine) 등

6) ‘블루 아워(Blue Hour)’는 해질 무렵 혹은 새벽녘, 푸르스름하게 번져오는 아침도 낮도 아닌 시간대를 일컫는 표현으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지금(只今)의 한편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아름다움과 기대를 동시에 함축한다. 2013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는 기술과 예술, 기능과 미학의 ‘블루 아워’ 선상에 위치한 창작지원 아이디어 10개를 창작지원하여 현재 금천예술공장에서 전시 중이다.(2013.09.11.~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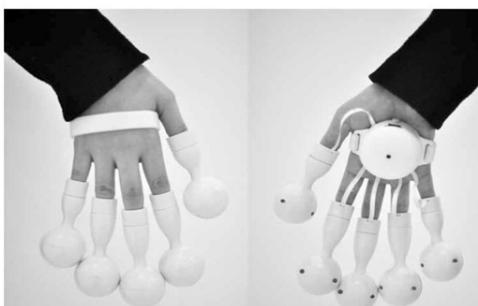
[도판1] 금천예술공장 전경



[도판2] 전파상, <개구리 실로폰> :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박일&양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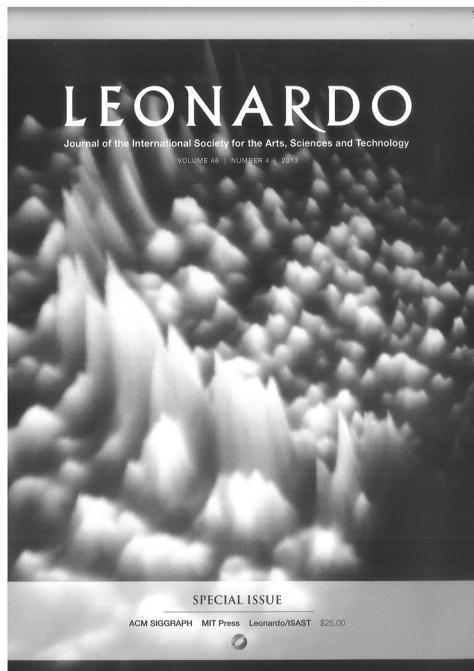
Park Earl & Yang Sookyun



[도판3] 하이브, <아이리스> : 2012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도판4] 과학+예술의 국제적 저널 ‘레오나르도’ 2013년 8월 표지를 장식한 한윤정+한병준,
<손끝소리> : 2012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도판5] 앤엑스유엑스, <스마트버그> : 2013년 다빈치 아이디어 개발작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 서울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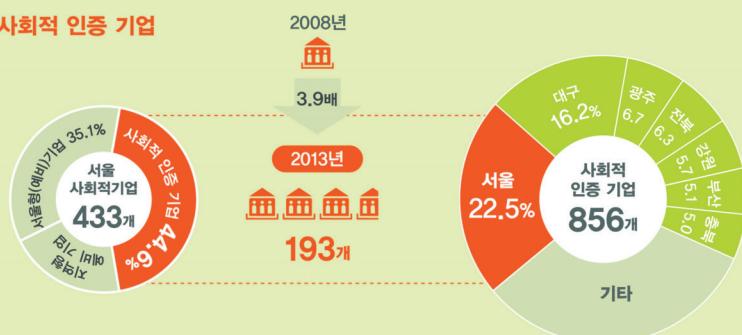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 사회적 기업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의 사회적기업 433개 중 인증 기업은 193개
사회적 인증 기업은 전국의 22.5%로 최근 5년간 3.9배 증가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환경'으로 105.8억원

서울 사회적 인증 기업



서울 사회적 인증 기업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서울의 사회적기업 433개 중 인증 기업은 193개 사회적 인증 기업은 전국의 22.5%로 최근 5년간 3.9배 증가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환경’으로 105.8억원

- 서울의 사회적기업 433개 중 인증 기업은 193개
 - 서울 사회적기업은 총 433개로 지역형 예비기업이 20.3%, 서울형 예비기업이 35.1%, 서울형 인증기업이 44.6%를 차지
- 사회적 인증 기업은 전국의 22.5%로 최근 5년간 3.9배 증가
 - 서울의 사회적 인증 기업 비중은 전국의 22.5%로 1순위
 - 2008년 49개에서 2013년 193개로 3.9배 증가
- 사업체 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환경’으로 105.8억원
 - ‘환경’ 105.8억원, ‘기타’ 82.1억원, ‘보육’ 70.2억원, ‘사회복지’ 58.9억원은 평균 매출액보다 상회
 - ‘보건’ 39.4억원, ‘간병, 가사지원’ 36.8억원, ‘교육’ 18.6억원, ‘문화, 예술, 관광, 운동’ 13억원으로 평균 매출액보다 하회

주) 서울 인증기업 사업체 수: 2008년, 2013년 7월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명단

서울형 예비기업, 지역형 예비기업: 2013년 7월 기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명단

지역 기타: 인천, 경기, 경남, 울산, 충남, 경북, 대전, 전남, 제주, 세종

서비스분야 기타: 음식료제조, 물류택배, 일반제조, pc소모품, 지역개발컨설팅, 출판 인쇄 복사
용지 및 기타서비스

매출액: 2012년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기준

자료: 2008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명단 (고용노동부)

2013년 7월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명단 (고용노동부)

2013년 7월 기준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명단 (서울특별시)

<표 1> 2008년, 2013년 지역별 사회적 인증 기업 사업체 수와 비율

(단위 : 개)

	2008	2013	2013년 지역별 비율
서울	49	193	22.5%
대구	6	139	16.2%
광주	11	57	6.7%
전북	14	54	6.3%
강원	17	49	5.7%
부산	10	44	5.1%
충북	14	43	5.0%
인천	12	39	4.6%
경기	34	38	4.4%
경남	7	35	4.1%
울산	6	35	4.1%
충남	4	33	3.9%
경북	6	27	3.2%
대전	8	25	2.9%
전남	12	23	2.7%
제주	7	19	2.2%
세종		3	0.4%
전국	217	856	100.0%

자료: 2008년 12월 기준, 2013년 7월 기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명단 (고용노동부)

〈표 2〉 2013년 서울 사회적기업 사업체 수와 비율

	인증	지역형	서울형	합계
사업체 수	193	88	152	433
비율	44.6%	20.3%	35.1%	100.0%

자료: 2013년 7월 기준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명단 (서울특별시)

〈표 2〉 2008년, 2013년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

단위 : 개, 천원(천원미만 절사)

	서울		
	2012	매출액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간병, 가사지원	14	51,536,386	3,681,170
교육	10	18,630,899	1,863,090
기타	41	336,598,788	8,209,727
문화, 예술, 관광, 운동	32	41,524,703	1,297,647
보건	2	7,881,474	3,940,737
보육	1	7,021,109	7,021,109
사회복지	14	82,409,554	5,886,397
환경	11	116,381,982	10,580,180
합계	125	661,984,895	평균: 5,310,007

주) 매출액: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기준

자료: 201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고용노동부)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응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약 | 7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제조업생산지수는 85.5로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
-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3.5%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813억원으로 전국(5조8,803억원)의 37.1%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대형마트는 4.0% 증가

고 용

- 취업자수는 51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9천명(0.8%)이 증가
-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부 동 산

- 주택매매가격은 강남지역(-0.25%) 특히 강남구(-0.54%)와 동대문구 (-0.43%)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24% 하락
- 주택전세가격 역시 강북지역(0.54%) 특히 성동구(0.90%)와 강서구(0.90%) 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52%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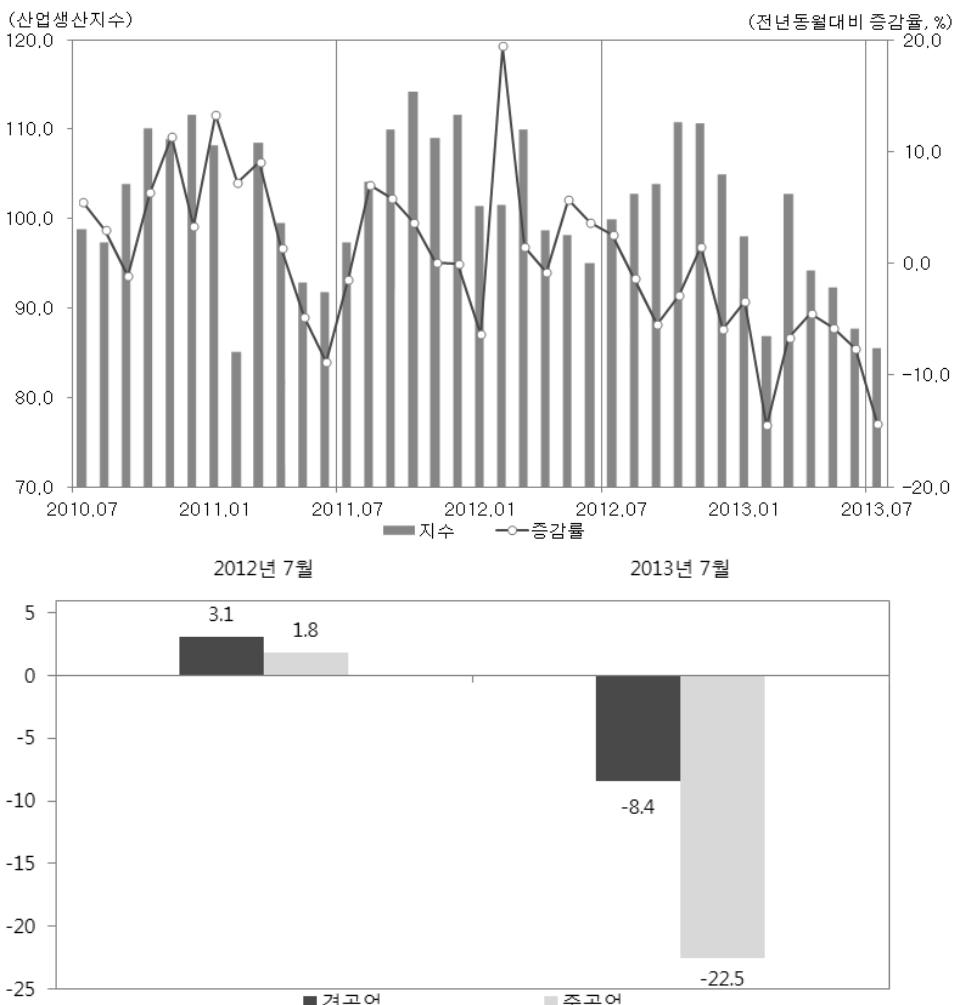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7조 7,886억 원으로 전월대비 0.45% 증가, 그중 가 계대출은 176조 4,553억 원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 신설법인수는 2,267개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6.4% 증가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7.5% 감소

수 출 입

- 수출은 5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품목별로는 자동 차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수입은 11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7월 제조업생산지수 85.5(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14.3% 감소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 중공업부문은 22.5% 감소
 - 전년동월대비 고무 및 플라스틱(41.6%), 전기·가스·증기업(34.4%), 섬유제품(31.8%) 등 증가, 의료정밀광학(-37.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1.0%)등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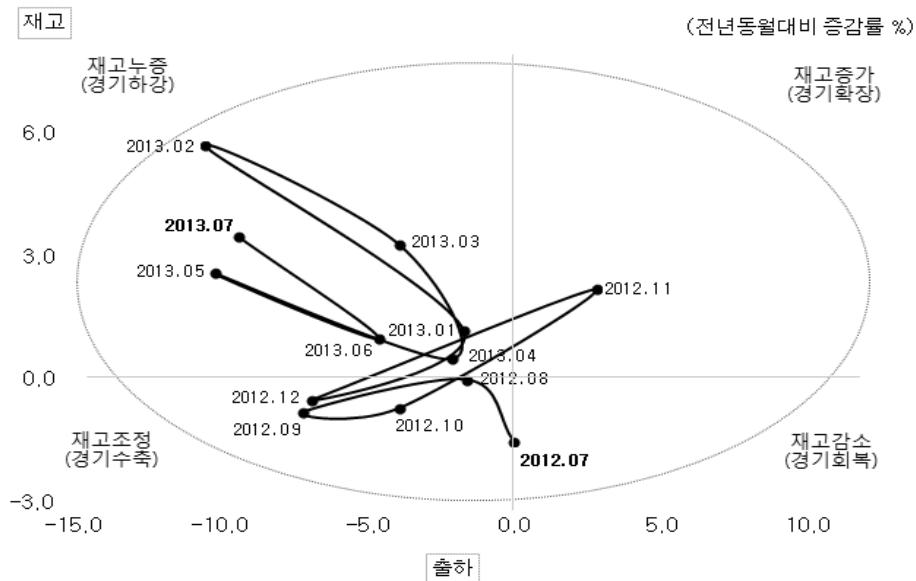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7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7월 출하지수는 88.8(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 서울의 7월 재고지수는 106.2(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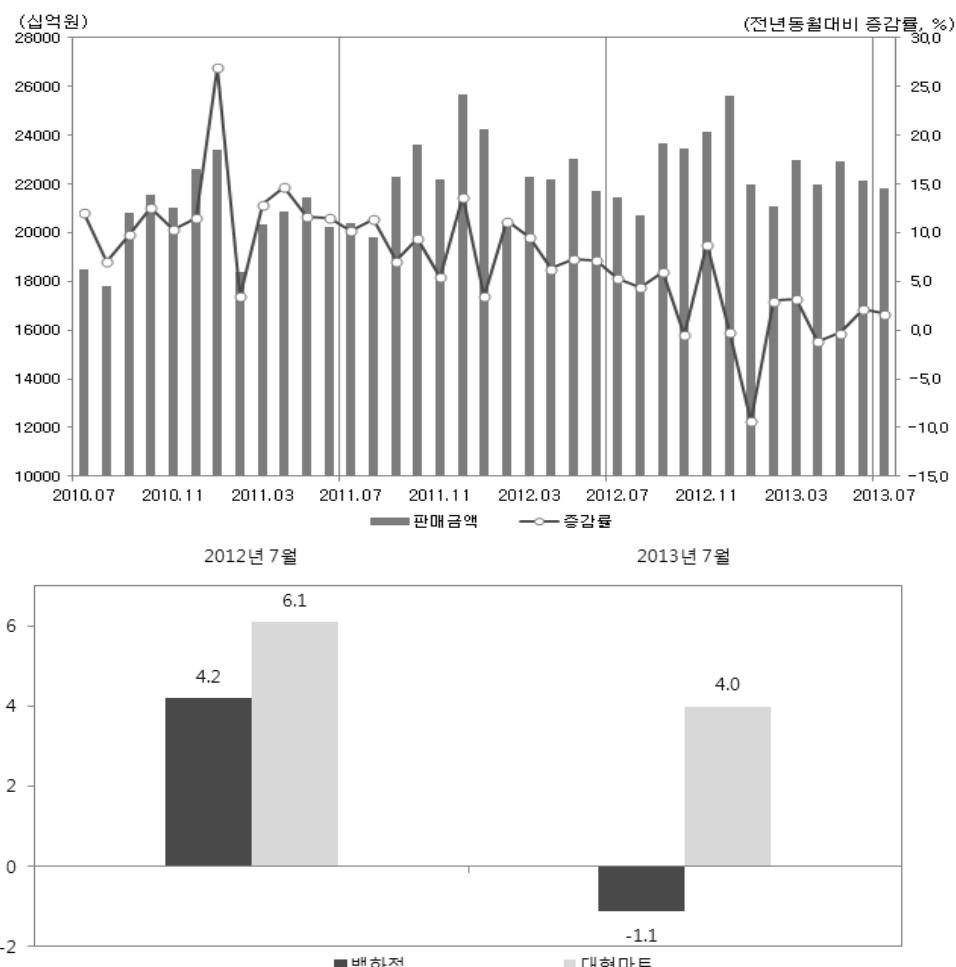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소·비 |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813억원으로 전국(5조8,803억원)의 37.1%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9,527억원으로 전국(2조782억원)의 45.8%,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2,286억원으로 전국(3조8,021억원)의 32.3%를 차지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5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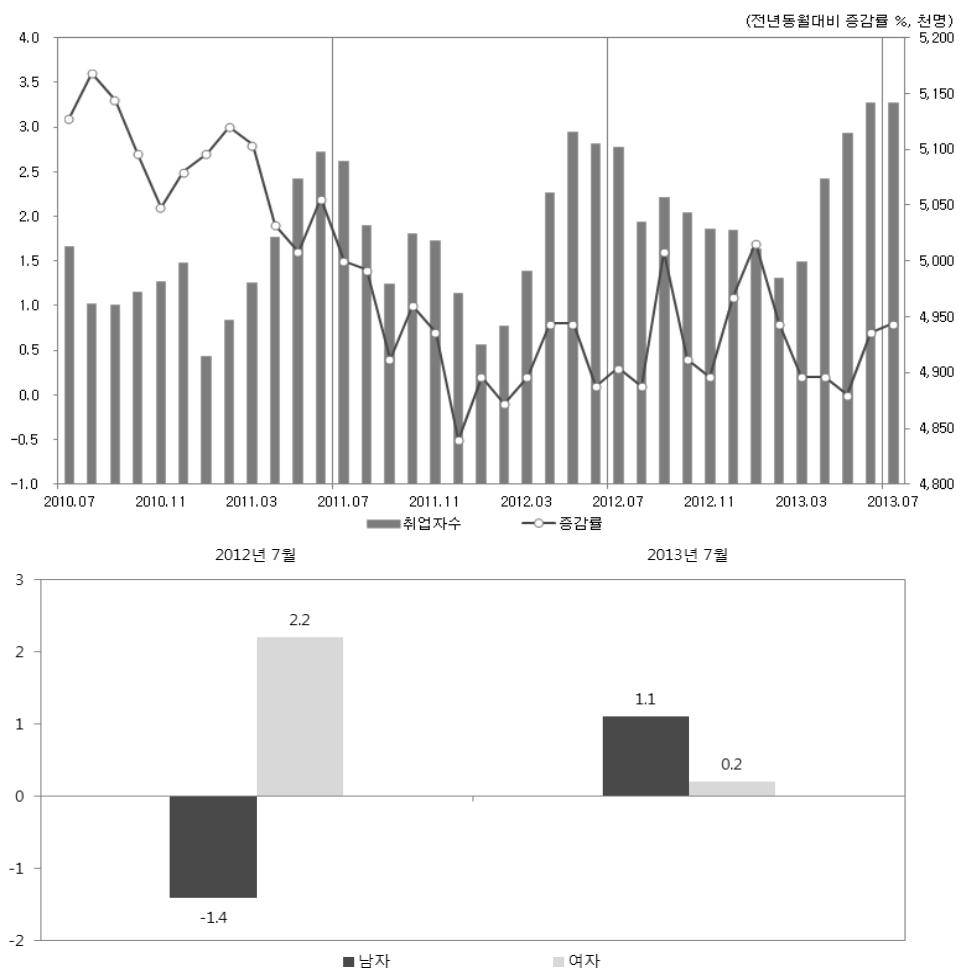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 · 업 ·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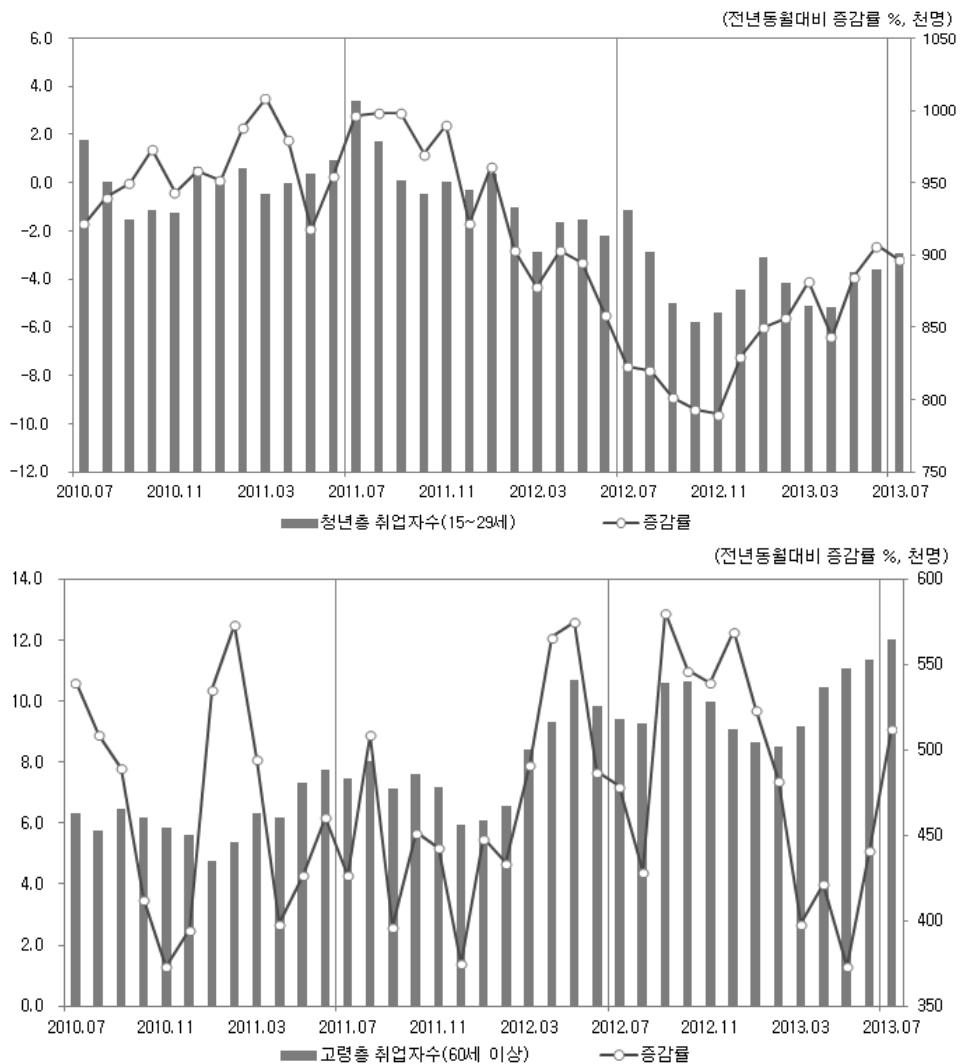
- 서울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서울의 7월 취업자는 514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9천명(0.8%)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6만3천명, 여자는 227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8천명(0.3%), 여자는 3만명(1.4%)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6만4천명(7.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만8천명(1.4%)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7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하락,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7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9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7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6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2013년 7월 들어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과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다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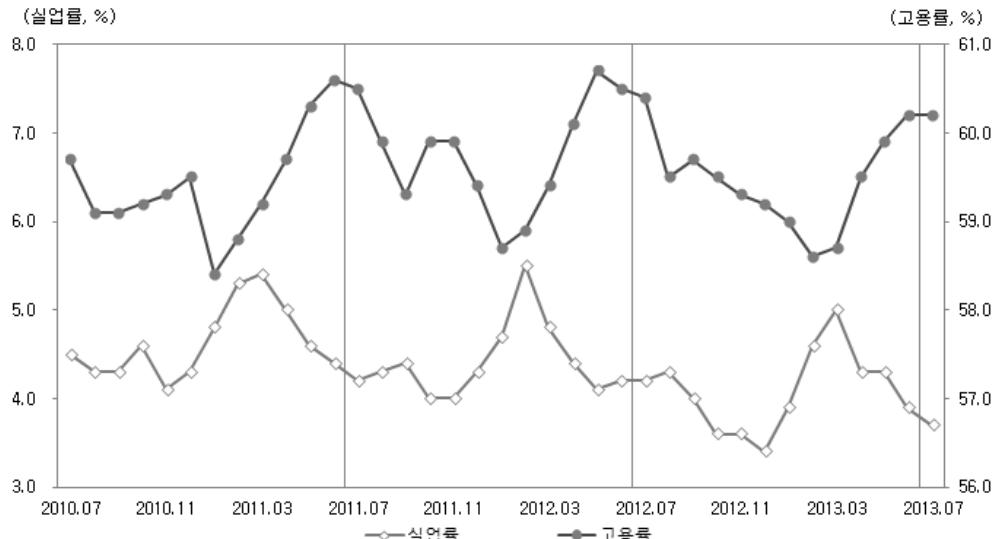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7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7월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9%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여자는 51.3%로 보합
 - 2013년 7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4%)에 비해 0.2%p 낮은 수준

- 서울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7월 실업자는 19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5천명(-11.4%)이 감소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 여자는 3.4%로 전년동월대비 0.8%p, 0.1%p 각각 감소
 - 2013년 7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1%)에 비하여 0.6%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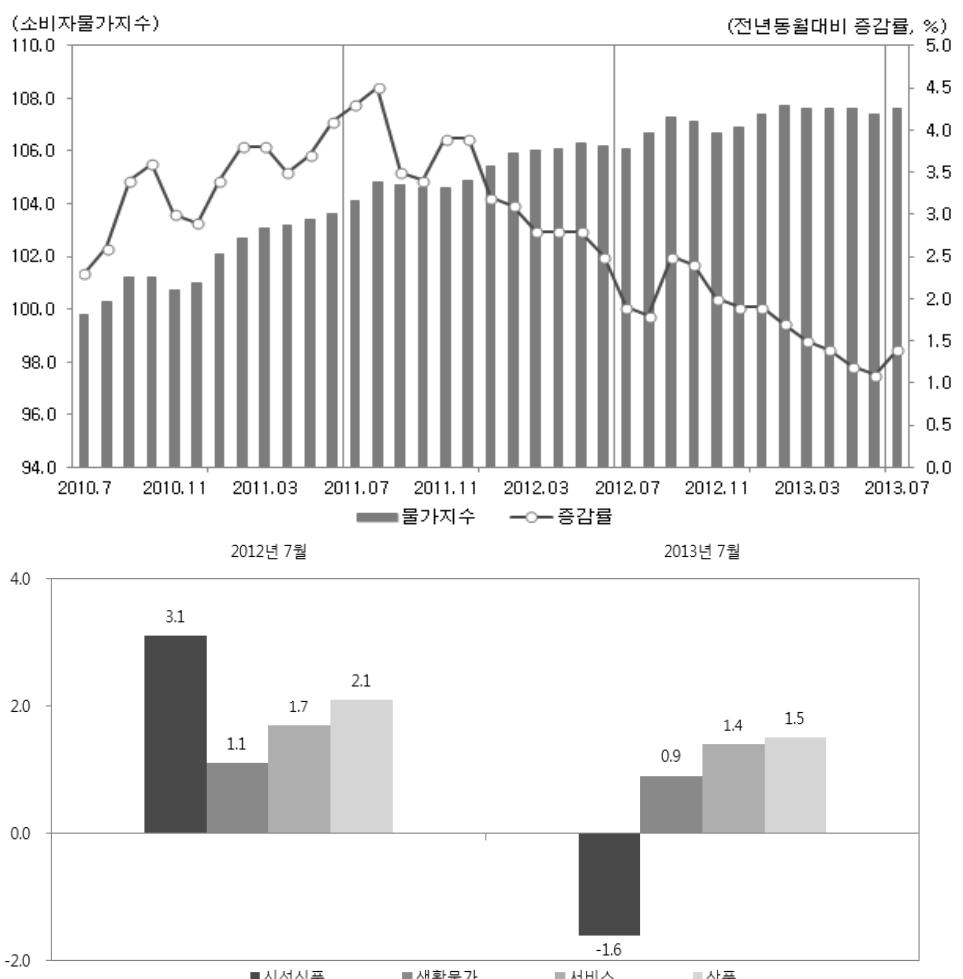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0.7%), 신선식품지수(-1.6%)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제품(1.6%), 전기·수도·가스(3.8%), 집세를 포함한 서비스(1.4%), 생활물가지수(0.9%) 부문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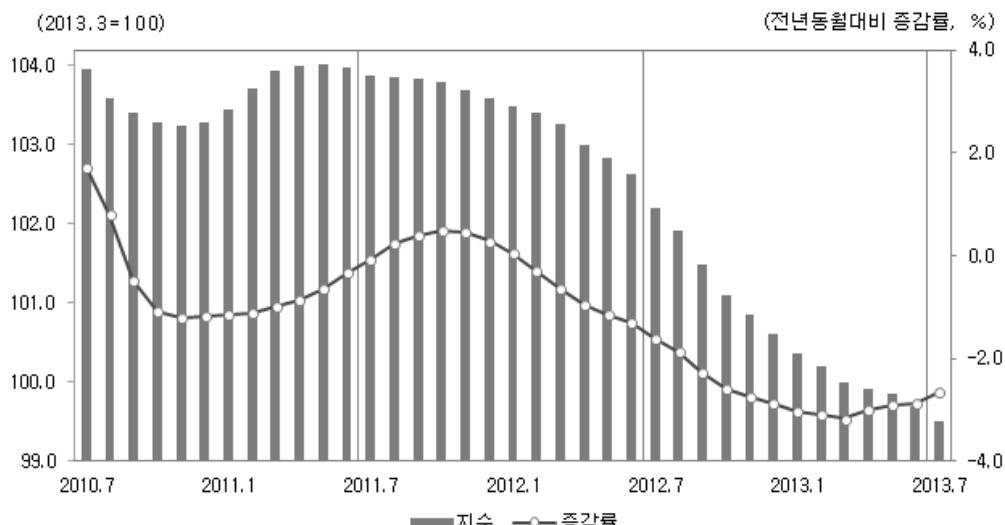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이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출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24% 하락
 - 강남지역(-0.25%), 강북지역(-0.23%)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하락
 - 하락률 상위지역: 강남구(-0.54%), 동대문구(-0.43%), 중랑구(-0.38%), 구로구(-0.36%)
 - 단독주택(-0.11%), 연립주택(-0.12%), 아파트(-0.33%) 등 하락세 지속
- 전국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보합
 - 광역시(0.20%), 기타지방(0.22%)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도권(-0.19%)은 하락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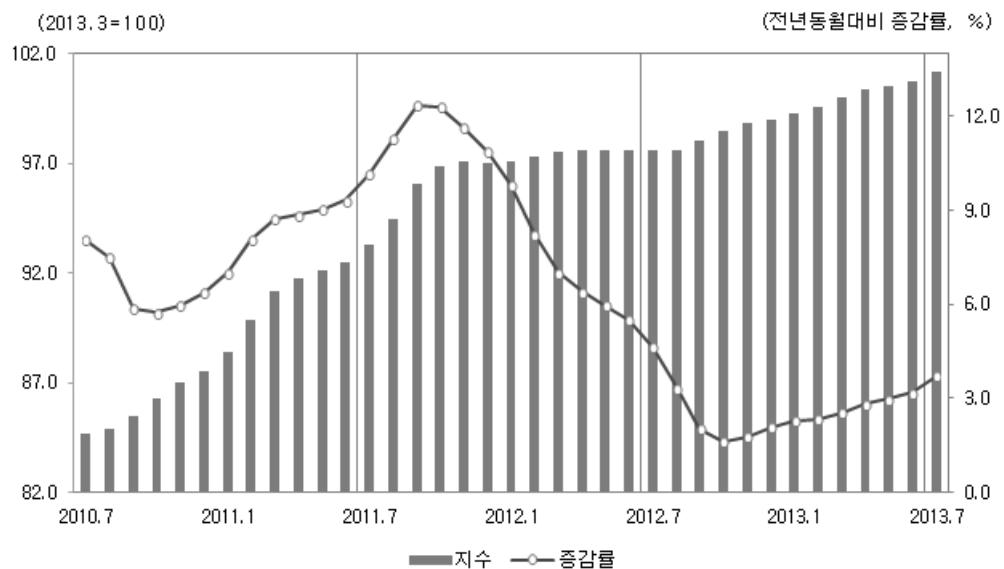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30만원)은 전월(1,635만원)대비 0.3% 하락
 - 매매거래건수(1,905건)는 전월(9,031건) 대비 78.9% 감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52% 상승
 - 강남지역(0.51%), 강북지역(0.54%)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성동구(0.90%), 강서구(0.83%), 서대문구(0.77%), 강남구(0.63%)
 - 단독주택(0.23%), 연립주택(0.44%), 아파트(0.64%)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7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37% 상승
 - 광역시(0.24%), 기타지방(0.29%), 수도권(0.46%)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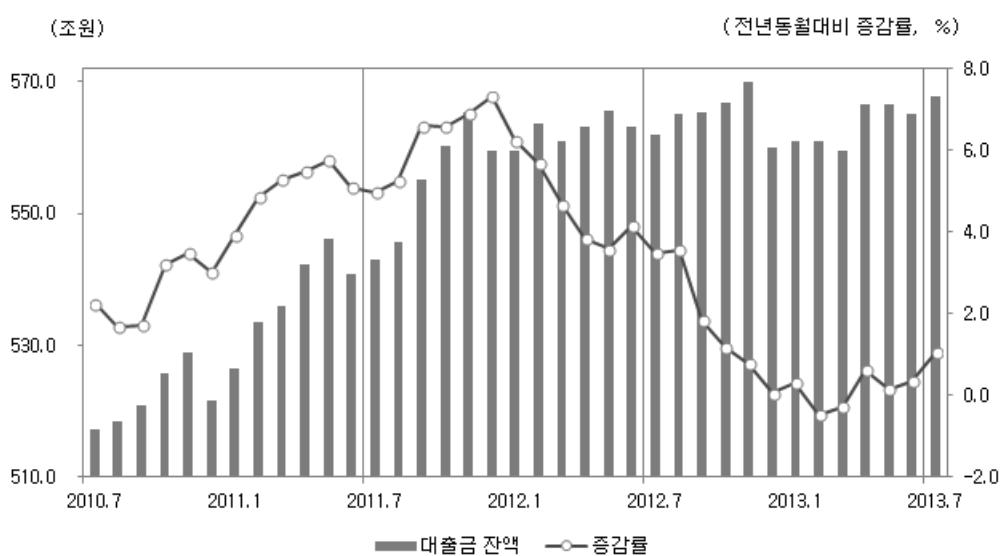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전세가격(평균 900만원)은 전월(892만원)대비 0.9% 증가
 - 전세거래건수(8,094)는 전월(8,094건) 대비 0.1%증가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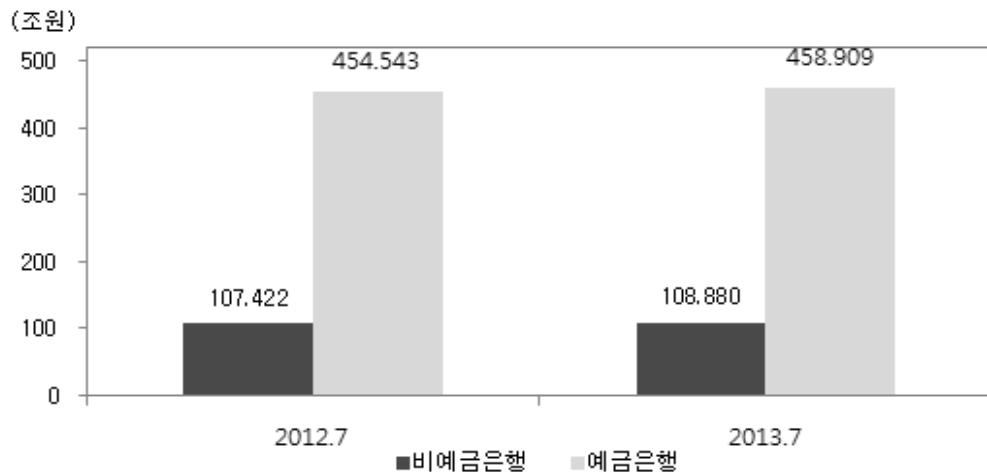
- 7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67조 7,886억원)은 전월(562조 2,277억원)대비 0.45%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58조 9,088억원)과 비예금은행(108조 8,798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1.4% 증가

- 7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483조 7,840억원)은 전월(1,479조 469억원)대비 0.32%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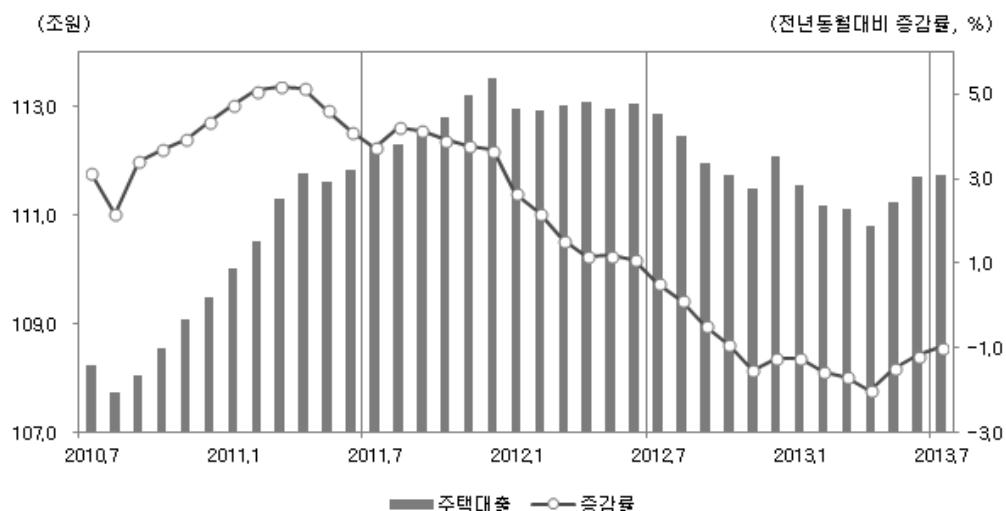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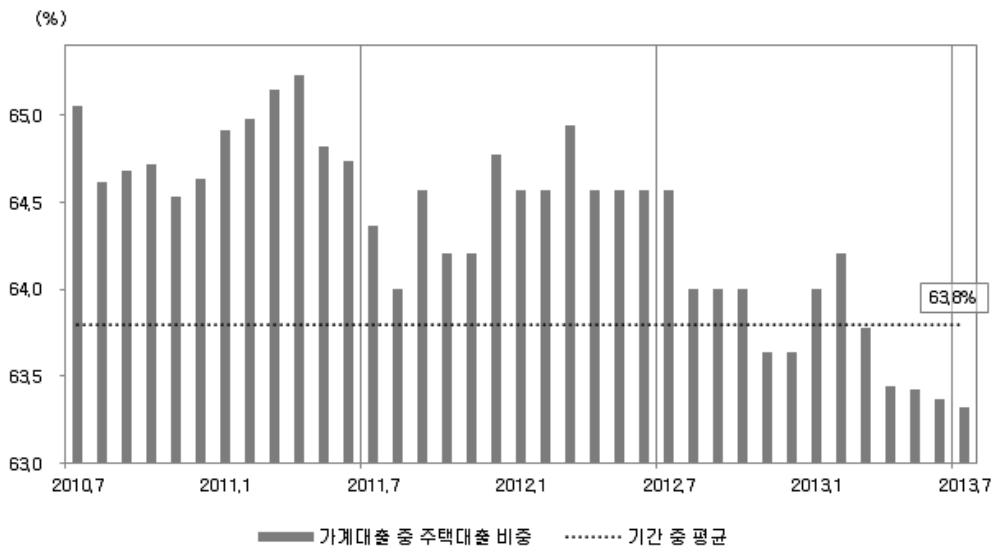
■ 7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 은행 가계대출(176조 4,553억원)은 전월(176조 2,881억원)대비 0.1%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1조 7,359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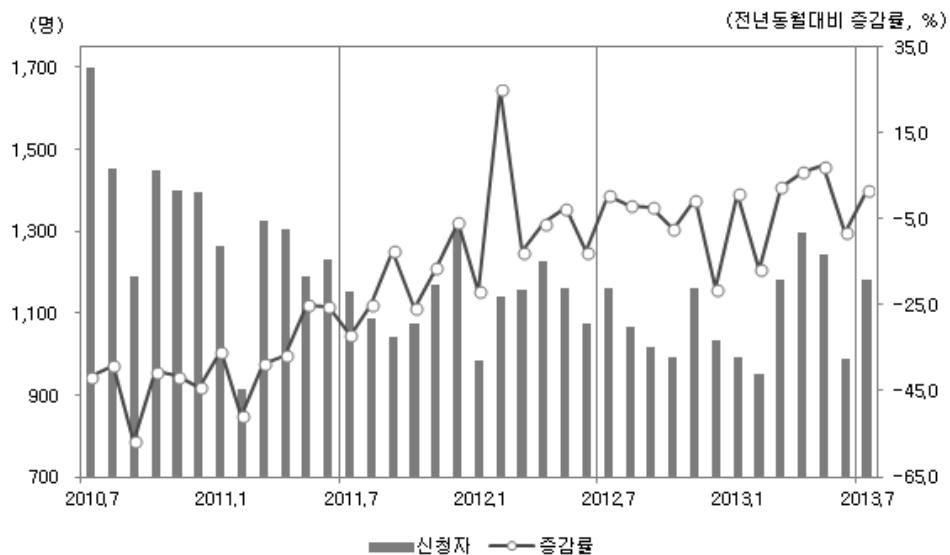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7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개인파산 신청자(1,180명)은 전월대비 19.4% 증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1.2%)은 전년동월대비 44.4%p 감소, 면책 기각률(1.7%)은 전년동월대비 65.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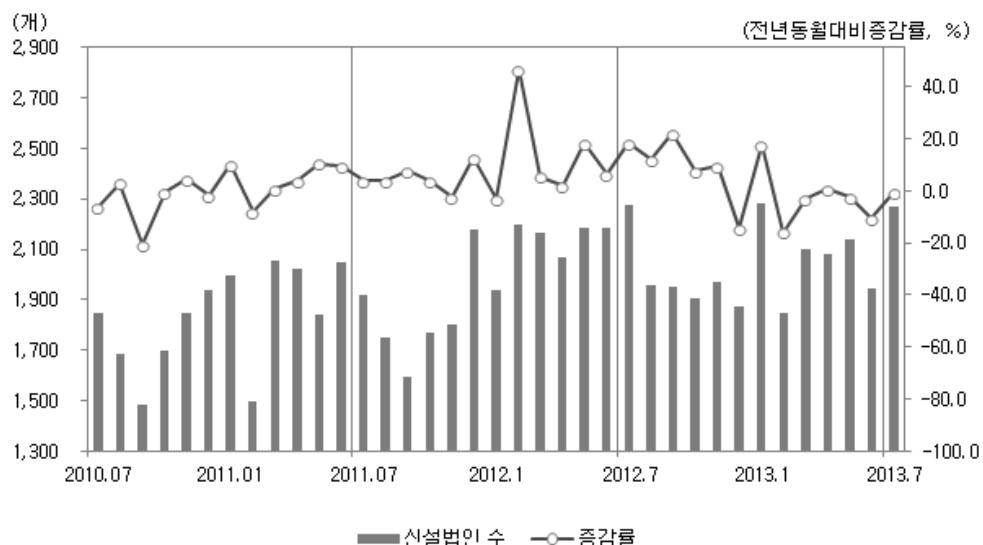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부·도·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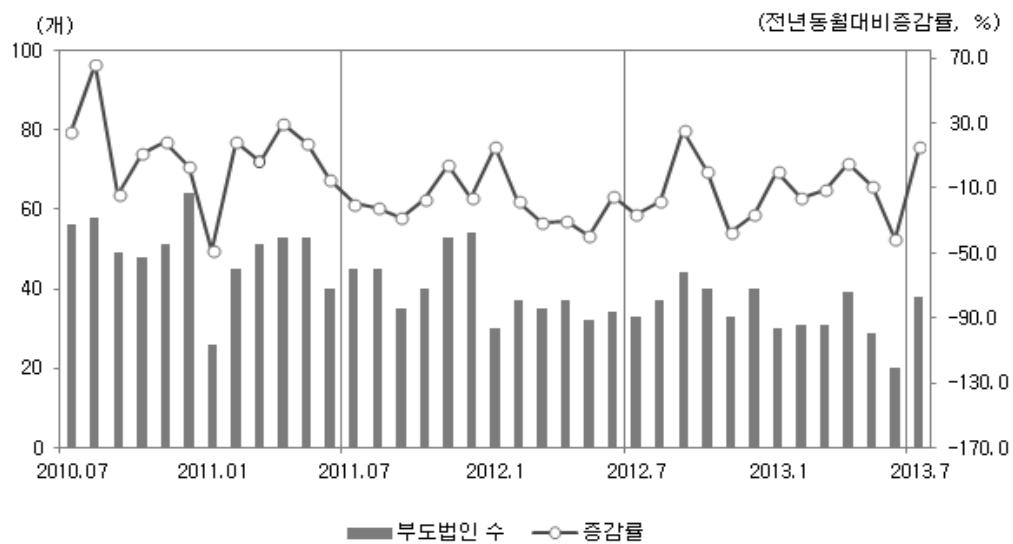
-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67개로 전월대비 16.4%(320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0.3%(6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20.0%(60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각각 16.6%(252개), 8.0%(9개) 증가

- 서울의 7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8개로 전월대비 90.0%(18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5.2%(5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87.5%(7개) 증가,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 대비 각각 88.9%(8개), 150.0%(3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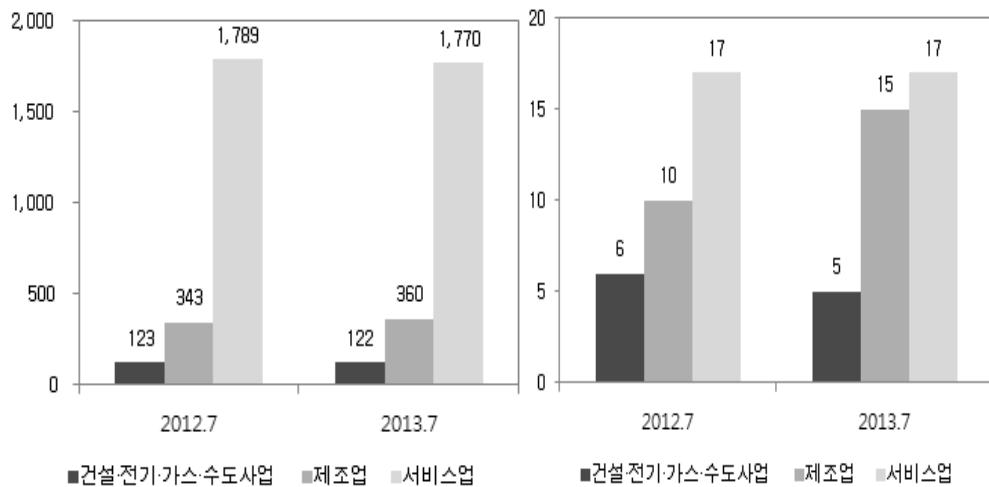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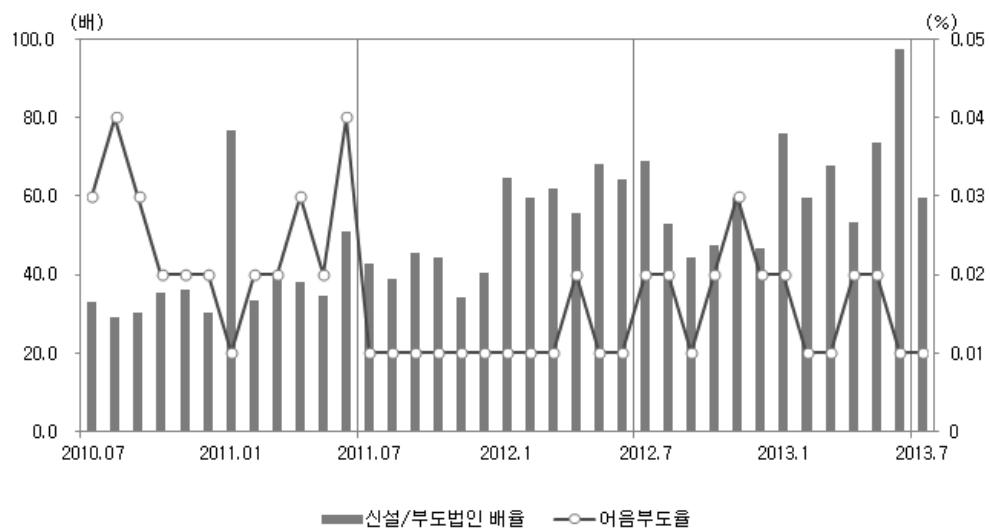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현황

- 7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9.7배로 전월(97.4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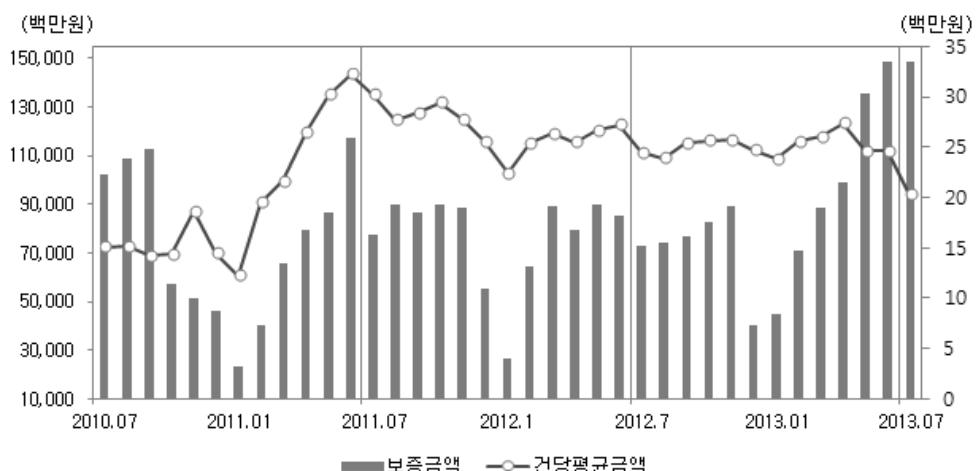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서울의 7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48,628백만원, 7,361건
- 보증금액은 전월대비 보합,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17.5%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7.5%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103.8%, 145.5%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17.0%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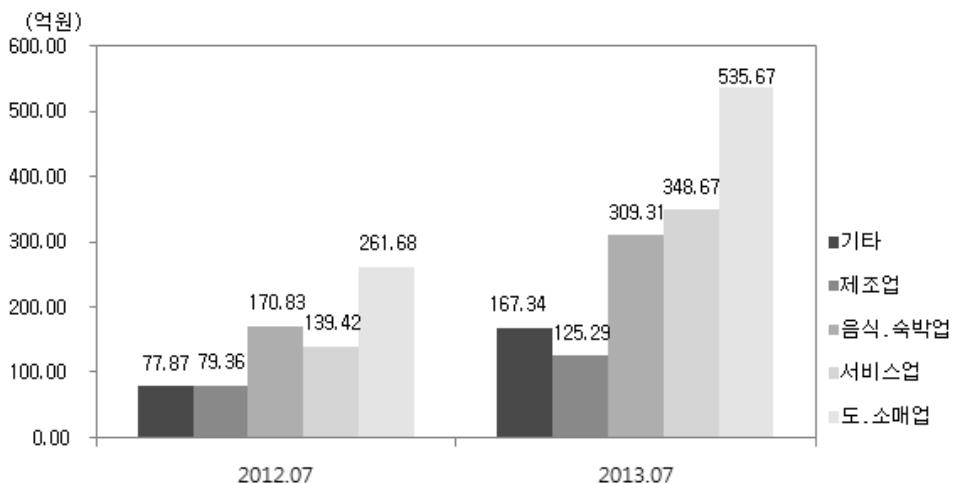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7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

- 7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4%로 전월(8.1%) 대비 0.3%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6.0%로 전월(38.4%) 대비 2.3%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6.6%로 전월(6.6%) 대비 보합수준이며 도·소매업종은 36.4%로 전월(37.1%) 대비 0.8%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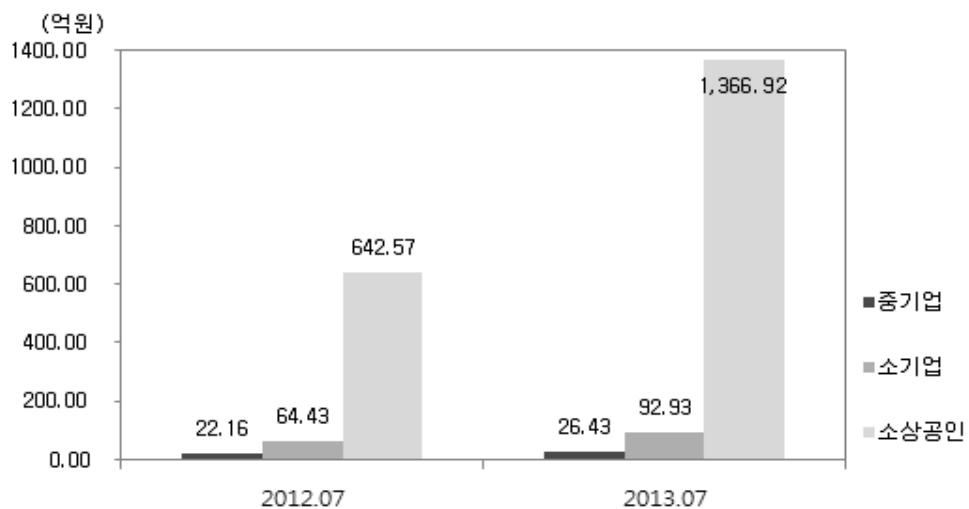
■ 서울의 7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92.0%로 전월대비 2.7%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6.7%로 전월대비 0.8%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3%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5%로 전월대비 보합수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8%로 전월대비 2.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8%로 전월대비 0.7%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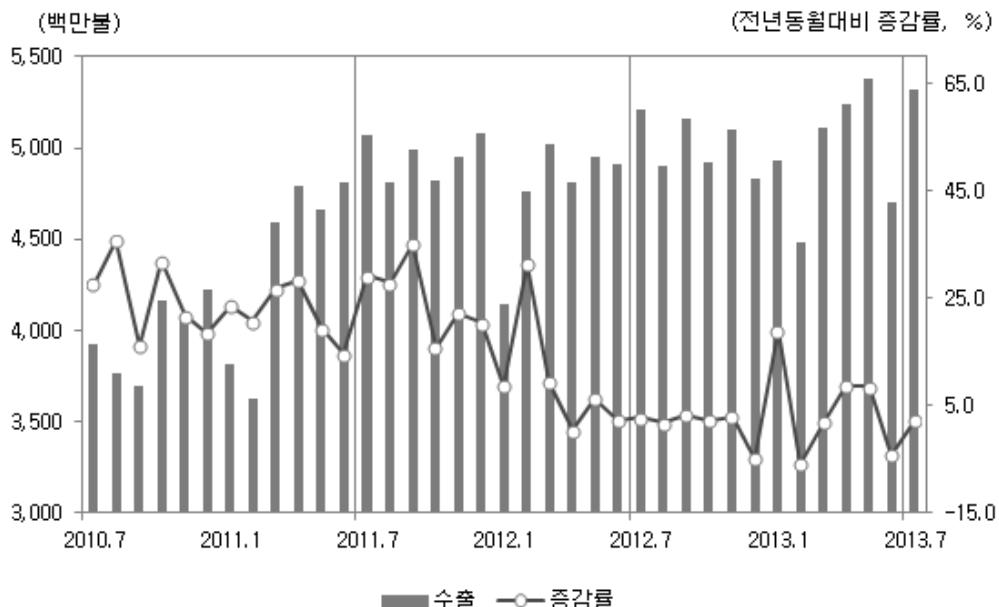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하였고 수입은 110.6 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58.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였고 수입은 433.0 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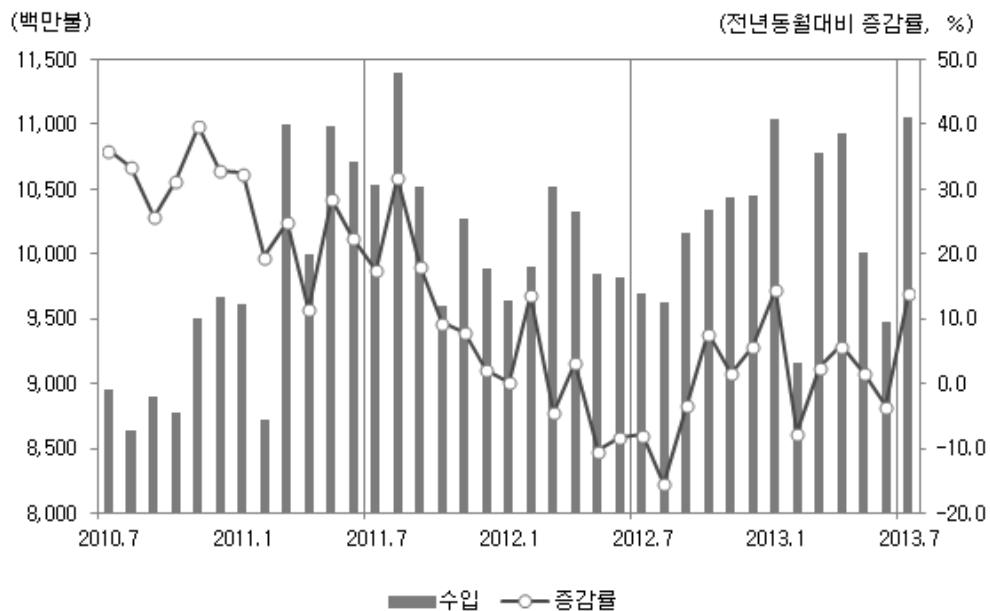
■ 서울의 7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499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5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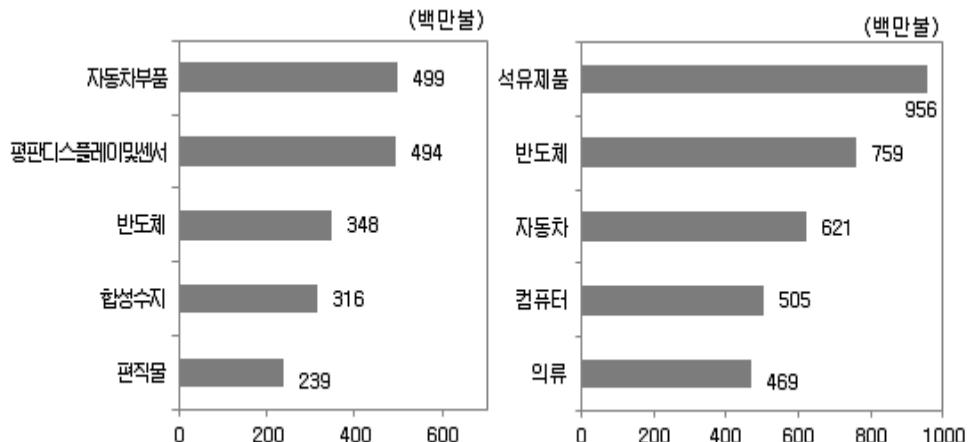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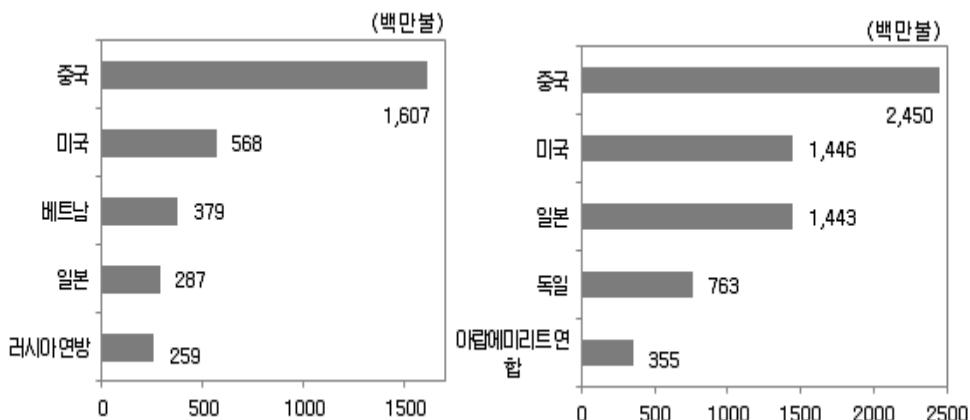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7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1,60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연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7.0% 증가한 2,450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SEOUL ECONOMIC BULLETIN

부록: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부동산

■ 금 응

1. 광공업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2/4	96.4	103.7	95.1	103.1	92.9	95.6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	102.5	98.2	110.2	102.8	106.9	109.3
2/4p	89.9	96.6	91.6	99.4	103.3	106.9
2011. 7	93.0	103.6	91.2	105.8	104.2	105.0
8	98.9	106.6	97.4	106.9	103.7	104.3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	94.6	98.9	104.1	104.7	106.9	109.1
3	105.8	100.3	112.0	103.9	106.9	109.3
4	95.0	96.1	100.3	100.7	103.0	104.5
5	90.0	96.0	86.8	94.4	105.2	106.7
6p	84.7	97.8	87.0	102.4	107.3	106.4
7p	83.8	93.3	85.2	100.2	106.2	107.0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도	생산			출하			재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 1/4	-5.0	-7.0	102.5	-0.7	-4.4	110.2	3.1	3.3	106.9
2/4p	-1.6	-5.1	89.9	-3.3	-4.2	91.6	-2.2	0.7	103.3
2011. 7	4.3	-1.0	93.0	7.0	2.2	91.2	1.3	5.1	104.2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6.8	-1.8	107.1	-3.6	0.2	114.6	-0.9	1.2	106.4
2	3.8	-13.0	94.6	4.9	-9.6	104.1	3.9	5.7	106.9
3	1.4	-6.1	105.8	-0.8	-3.7	112.0	0.2	3.3	106.9
4	-4.2	-3.7	95.0	-3.1	-1.4	100.3	-4.4	0.5	103.0
5	-0.1	-4.9	90.0	-6.3	-8.4	86.8	2.1	2.6	105.2
6p	1.9	-6.7	84.7	8.5	-3.7	87.0	0.6	1.0	107.3
7p	-4.6	-12.1	83.8	-2.1	-6.5	85.2	-0.3	3.5	106.2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자방통계청

1. 2013년 7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7	2013.6	2013.7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54	8,540	8,538	84	1.0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5,324 (63.0)	5,352 (62.7)	5,337 (62.5)	13 (-0.5p)	0.2 -
남 자 (참가율)	2,996 (73.5)	2,988 (72.9)	2,979 (72.7)	-17 (-0.8p)	-0.6 -
여 자 (참가율)	2,328 (53.1)	2,365 (53.3)	2,358 (53.1)	30 (0.0p)	1.3 -
취 업 자 (고용률)	5,102 (60.4)	5,141 (60.2)	5,141 (60.2)	39 (-0.2p)	0.8 -
농림어업	8	3	2	-6	-77.2
광공업	499	462	471	-28	-5.7
· 제조업	498	461	469	-30	-5.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95	4,677	4,668	73	1.6
· 건설업	357	347	340	-17	-4.7
· 도소매·음식숙박업	1,329	1,333	1,327	-2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70	2,102	2,098	28	1.4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40	895	903	64	7.6
실 업 자 (실업률)	221 (4.2)	211 (3.9)	196 (3.7)	-25 (-0.5p)	-11.4 -
비경제활동인구	3,130	3,188	3,201	71	2.3

자료: 경인자방통계청

2. 2013년 7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7	2013.6	2013.7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102	5,141	5,141	39	0.8
직업별	관리자전문가	1,433	1,504	1,521	88	6.2
	사무종사자	1,058	1,079	1,081	23	2.2
	서비스판매종사자	1,207	1,214	1,195	-12	-1.0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2	7	5	-7	-57.9
성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93	1,337	1,339	-53	-3.8
	남자	2,855	2,873	2,863	8	0.3
	여자	2,248	2,268	2,278	30	1.4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1,173	1,100	1,108	-64	-5.5
	자영업주	1,003	934	945	-58	-5.8
	무급가족종사자	169	166	163	-6	-3.5
	임금근로자	3,930	4,041	4,033	103	2.6
	상용근로자	2,384	2,536	2,571	187	7.8
	임시근로자	1,134	1,123	1,109	-26	-2.3
	일용근로자	412	382	354	-58	-14.1
취업시간대별	36시간 미만	617	580	604	-13	-2.0
	1~17시간	237	207	198	-39	-16.5
	18~35시간	380	373	406	26	6.9
	36시간 이상	4,414	4,496	4,455	41	0.9
	36~53시간	3,196	3,403	3,333	137	4.3
	54시간이상	1,218	1,092	1,122	-96	-7.9
	일 시 휴 직	72	65	82	10	13.8
	주당평균취업시간	44.8	44.2	44.4	-0.4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9.	10	4,840	-1.4	192	3.4	3.8	3,306 3.2
	11	4,879	-0.4	216	11.3	4.2	3,248 1.8
	12	4,877	0.5	208	6.6	4.1	3,261 0.7
2010.	4	4,925	1.9	264	3.9	5.1	3,184 -1.2
	5	4,995	2.9	219	-9.1	4.2	3,167 -1.7
	6	4,988	2.0	221	-5.8	4.2	3,177 -0.7
	7	5,013	3.1	234	-4.8	4.5	3,144 -2.4
	8	4,962	3.6	223	-0.3	4.3	3,209 -3.4
	9	4,960	3.3	225	5.1	4.3	3,210 -3.3
	10	4,972	2.7	239	24.1	4.6	3,186 -3.6
	11	4,981	2.1	213	-1.5	4.1	3,206 -1.3
	12	4,998	2.5	224	7.3	4.3	3,184 -2.4
	4	5,021	1.9	263	-0.2	5.0	3,125 -1.9
	5	5,074	1.6	243	11.1	4.6	3,097 -2.2
	6	5,098	2.2	236	6.7	4.4	3,079 -3.1
2011.	7	5,089	1.5	226	-3.5	4.2	3,093 -1.6
	8	4,962	1.4	223	1.7	4.3	3,141 -2.1
	9	4,979	1.4	223	107	4.3	3,141 -2.1
	10	5,024	1.0	210	-12.0	4.0	3,147 -1.2
	11	5,018	0.7	208	-2.4	4.0	3,150 -1.8
	12	4,971	-0.5	223	-0.3	4.3	3,181 -0.1
	1	4,925	0.2	241	-2.3	4.7	3,220 -0.8
	2	4,925	-4.0	287	13.0	5.5	3,168 -0.6
	3	4,991	0.2	253	-11.5	4.8	3,164 0.7
	4	5,061	0.8	233	-11.7	4.4	3,124 0.0
	5	5,115	0.8	216	-11.1	4.1	3,099 0.1
	6	5,105	0.1	226	-4.2	4.2	3,110 1.0
2012.	7	5,102	0.3	221	-2.0	4.2	3,130 1.2
	8	5,035	0.1	224	-1.1	4.3	3,201 1.9
	9	5,057	1.6	212	-8.3	4.0	3,197 0.6
	10	5,043	0.4	188	-10.4	3.6	3,241 3.0
	11	5,029	0.2	188	-9.4	3.6	3,264 3.6
	12	5,027	1.1	178	-20.0	3.4	3,289 3.4
	1	5,011	1.7	204	-15.6	3.9	3,285 2.0
2013.	2	4,984	0.8	241	-16.0	4.6	3,283 3.6
	3	4,999	0.2	265	4.7	5.0	3,251 2.7
	4	5,073	0.2	226	-2.9	4.3	3,224 3.2
	5	5,114	0.0	229	5.9	4.3	3,188 2.9
	6	5,141	0.7	211	-6.5	3.9	3,188 2.5
	7	5,141	0.8	196	-11.4	3.7	3,201 2.3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3.3 = 100.0>

연도	전국 주택매매가 격 종합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7	88.0	96.9	93.9	100.3	102.5	97.8	106.9
2008	90.7	101.8	102.1	101.5	105.8	106.9	104.8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109.1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109.6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109.6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109.5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109.0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108.5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107.9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107.4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7.1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07.0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06.9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107.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107.3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107.7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107.9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107.8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107.7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107.5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107.3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107.2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7.1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06.9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06.6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106.4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106.1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105.9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105.6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105.0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104.7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104.3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103.7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103.1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01.7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01.3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100.5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100.2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99.9
5	100.0	99.9	99.8	99.9	99.8	99.7	99.9
6	99.9	99.7	99.6	99.8	99.6	99.5	99.7
7	99.9	99.5	99.4	99.6	99.3	99.1	99.4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7	75.7	76.8	77.9	75.7	74.7	75.9	73.7
2008	76.9	77.6	80.6	74.9	73.4	76.3	71.0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5	100.6	100.5	100.4	100.6	100.6	100.6	100.7
6	100.8	100.7	100.6	100.8	100.9	100.8	100.9
7	101.1	101.2	101.1	101.3	101.5	101.5	101.6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7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 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 매매가격
강 북 구	99.8	100.5	99.4	101.6	1067.2
광 진 구	99.8	101.1	99.4	101.8	1720.5
노 원 구	99.1	100.6	99.2	100.8	1088.0
도 봉 구	99.2	101.7	98.9	101.7	1001.8
동대문구	99.4	101.3	99.0	101.7	1207.0
마 포 구	99.4	100.9	99.4	101.9	1600.4
서대문구	99.6	101.9	99.7	102.4	1215.3
성 동 구	99.0	102.4	98.7	102.2	1614.5
성 북 구	99.5	101.2	99.1	102.1	1195.1
용 산 구	98.2	101.2	98.7	101.4	2334.6
은 평 구	99.7	101.0	99.1	101.9	1198.6
종로구	99.9	100.8	99.5	101.2	1630.8
중 구	99.6	101.0	99.5	101.0	1650.1
중 랑 구	99.2	100.8	99.1	100.3	1073.1
강 남 구	99.4	101.3	99.2	101.3	2840.3
강 동 구	99.7	101.1	99.4	101.1	1598.3
강 서 구	99.4	102.1	99.1	103.3	1235.8
관 악 구	99.9	101.6	99.6	101.8	1192.8
구 로 구	99.3	101.2	99.0	101.6	1144.0
금 천 구	99.7	101.6	98.8	101.5	967.3
동 작 구	99.5	100.6	99.2	101.4	1486.3
서 초 구	99.8	100.8	99.9	100.5	2623.7
송 파 구	99.9	101.3	100.0	101.5	2114.3
양 천 구	99.4	101.0	99.1	101.4	1698.2
영등포구	99.3	101.4	99.3	102.0	1514.1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 p>

연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W/U\$)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5	2.59	2.96	2.72	2.55	1,974.5	1,110.7
6	2.87	3.24	2.69	2.49	1,884.4	1,135.2
7	2.91	3.38	2.68	2.48	1,871.8	1,127.2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2,078	277	118	1,670	0.02	39
5	2,140	279	129	1,721	0.02	29
6	1,947	300	113	1,518	0.01	20
7	2,267	360	122	1,770	0.01	38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 분	2013년			전월비	
	5월	6월	7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2,140	1,947	2,267	320	16.4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1	16	15	-1	-6.3
제조업 계	279	300	360	60	20.0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31	34	42	8	23.5
섬유 및 가죽	52	60	71	11	18.3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14	9	12	3	33.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	8	10	2	25.0
고무 및 화학제품	46	44	65	21	47.7
기계, 금속	31	32	39	7	21.9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1	82	92	10	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3	7	4	-3	-42.9
기타 제품제조업	14	24	25	1	4.2
건설업 계	129	113	122	9	8.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3	3	8	5	166.7
건설업	116	110	114	4	3.6
서비스업 계	1,721	1,518	1,770	252	16.6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5	5	2	-3	-60.0
도매 및 소매업	500	477	518	41	8.6
운수업	39	29	39	10	34.5
숙박 및 음식점업	31	51	43	-8	-15.7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60	287	336	49	17.1
금융 및 보험업	206	193	209	16	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	99	113	14	1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49	220	279	59	26.8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85	76	104	28	36.8
교육서비스업	52	37	59	22	5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2	5	3	15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35	21	30	9	42.9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23	21	33	12	57.1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7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7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 관세청, 「2013년 7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부동산114, 「2013년 7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중소기업청, 「2013년 7월 중 신설법인 동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iba.go.kr>」
- 통계청, 「2013년 7월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 「2013년 7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13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 한국은행, 「201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8월호)

2005년

3월호 | 권두컬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병순)

4월호 | 권두컬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5월호 | 권두컬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우) | 경제포커스: 서울시 신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재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6월호 | 권두컬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7월호 | 권두컬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 방향(김현아)

8월호 | 권두컬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9월호 | 권두컬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10월호 | 권두컬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11월호 | 권두컬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12월호 | 권두컬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 권두컬럼: 윤리경영, 환경영향(조동성) |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월호 | 권두컬럼: 수도권의 경쟁력(왕연균) |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운) |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전성근)

3월호 |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 …(박희석) |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정병순)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견(박래현) |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신창호) |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5월호 |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동직)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립)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울을 향하여(횡인식)

7월호 |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8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라도삼) |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구문모)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주성재) |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성용)

9월호 |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 방안(안종석) |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일영)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김철원) |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이기)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신창호) |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정병순)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 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신(강현주) | 자치구 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재고」를 위한 발전방향(김영수)

2007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박창일) |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원용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윤·박희석) | 자치구

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천수)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 |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금기용) | 서울시 컨벤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진홍석) | 생생리포트: 동대문, 「페션특별시, 서울」을 꿈꾸다(강현주) | 자치구 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자금 지원효과(신창호)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희·박희석) |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업) |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항문) |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최영수)

2007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차문중) |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고준성) | 한미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김범수)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권장호)

2007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정경원) |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신창호)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최두은) | 생생리포트: 「기능성에 울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경림)

2007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김문환) |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장광렬)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박용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산업경제센) |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윤종)

2007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안정숙) |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장동찬) | 서울시 드라마 산업(고정민) | 생생리포트: 횡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자치구 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여덕수)

2008년

2008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김경환) |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하여(최재현)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홍석기)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상호)

2008년 2월호 | 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정책(박영범) |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 혁개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장윤종) |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 외국인직접

투자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전영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박희석·권태구) |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순) |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련) | 디자인 서울(윤종영) |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고광득)

2008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옥성수)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고준호)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형) |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현) |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전인우) |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손민중) |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김재형)

2008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박승록) |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고유가와 민생대책(이달석) |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동우)

2008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와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김태희) | 경제포커스: 와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이경희)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윤남수) | 생생리포트: 경기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태두)

2008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김영인) |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김민자)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조익래)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하익봉)

2008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주선) |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임준) |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윤형호) |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임수근)

2008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최경수) |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부형)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김선빈)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009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박희석) |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김선홍)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선인명) |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호·이춘화)

화) |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정종규)

2009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물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권형준) |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윤형호) |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윤주환)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김백곤)

2009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김정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이정택) |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박병우) |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봉로)

2009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 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김성수) |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김문기) |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 발전방안(주대영) |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심규표)

2009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허재준) |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미밀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장석) |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장남종·권미리) |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 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 게임한류의 성과(김민규) |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통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 제약 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김은혜)

2009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재) |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이지평)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용순)

2009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 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정희윤) |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킹 전략(김찬동)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점(김영수) |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미령)

2010년

2010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디자이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라도삼) | 경제포커스: 디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최상호) |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홍석기)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김성태) |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임상수) |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김민성) |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최용순)

2010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 재정 분석(윤형호) | 경제포커스: 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김신영) |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임춘식) |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 초통계조사」 특성분석(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에의 시사점(박호정) |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1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종인)

2010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업(정병순) |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귀정비 발전방안(조연숙) |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상영)

2010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의 발전방향(송재용) |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김북한) |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2011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변미리) | 글로벌 메가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이판수)

2011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 기업탐방: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SR센

터(조달호·정규진) |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판수)

2011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 (김복한) |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할(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이갑수) |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종순 |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정)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티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한미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 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천영)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홍승아) |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2012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김동열)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이은애) |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용선) | 생생리포트: 서울 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복한·김범식)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석) |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곽지원)

2012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나도삼) | 현시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송기철) |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룡) | 생생리포트: 하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곽지원)

2012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김태곤) |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강오) |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 (김동환) |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 (홍미영) |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

반기 서울경제 전망(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김영생) |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김영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이종우)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제안(김자봉) |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 아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옹호성) |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권영돈) |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 서울 아파트 평당 (3.3m²) 전세가격과 증가율(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황 및 상생협력(강희은)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 서울 자영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 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 서울시민 주거 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013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화봉) |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박덕배) |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고정민) |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라도삼) | 생생리포트: 문회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김재목) |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곽대중) |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김민경) |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단 커피전문점(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R&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김연배) | 기업의 R&D 이웃소식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박문수)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서울신용보증재단) |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정우수) |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전승우) | 생

생리포트: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김태홍) |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

자(서울경제분석센터)